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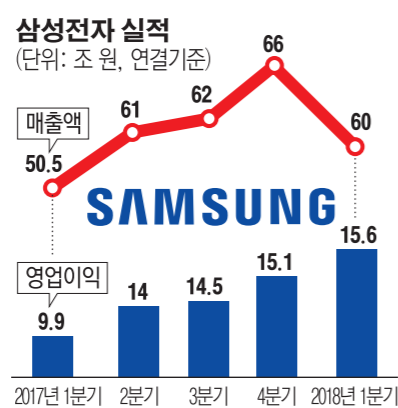
1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15.6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예상치 훌쩍 넘겨 또 신기록
반도체·스마트폰이 실적 '쌍끌이'
영업이익률도 '26%'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1분기는 전통적 비수기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놀랍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5조6000억 원의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6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 분기 65조9800억 원 대비 9.06%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의 50조5500억 원과 비교



해선 18.6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15조1500억 원) 대비 2.97%, 전년 동기(9조9000억)보다는 무려 57.58% 늘었다

앞서 증권가가 전망한 삼성전자 1분

기 컨센서스는 매출 61조6338억 원, 영업이익 14조5607억 원이었다. 전망치보다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5% 가까이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다. 특히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19.6%)보다 무려 6.4%포인트(P) 오른 26.0%를 나타냈다. 100원어치를 팔아 26원의 이익을 남긴 셈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번 삼성전자 호실적의 일등공신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 슈퍼 호황이 주춤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은 기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9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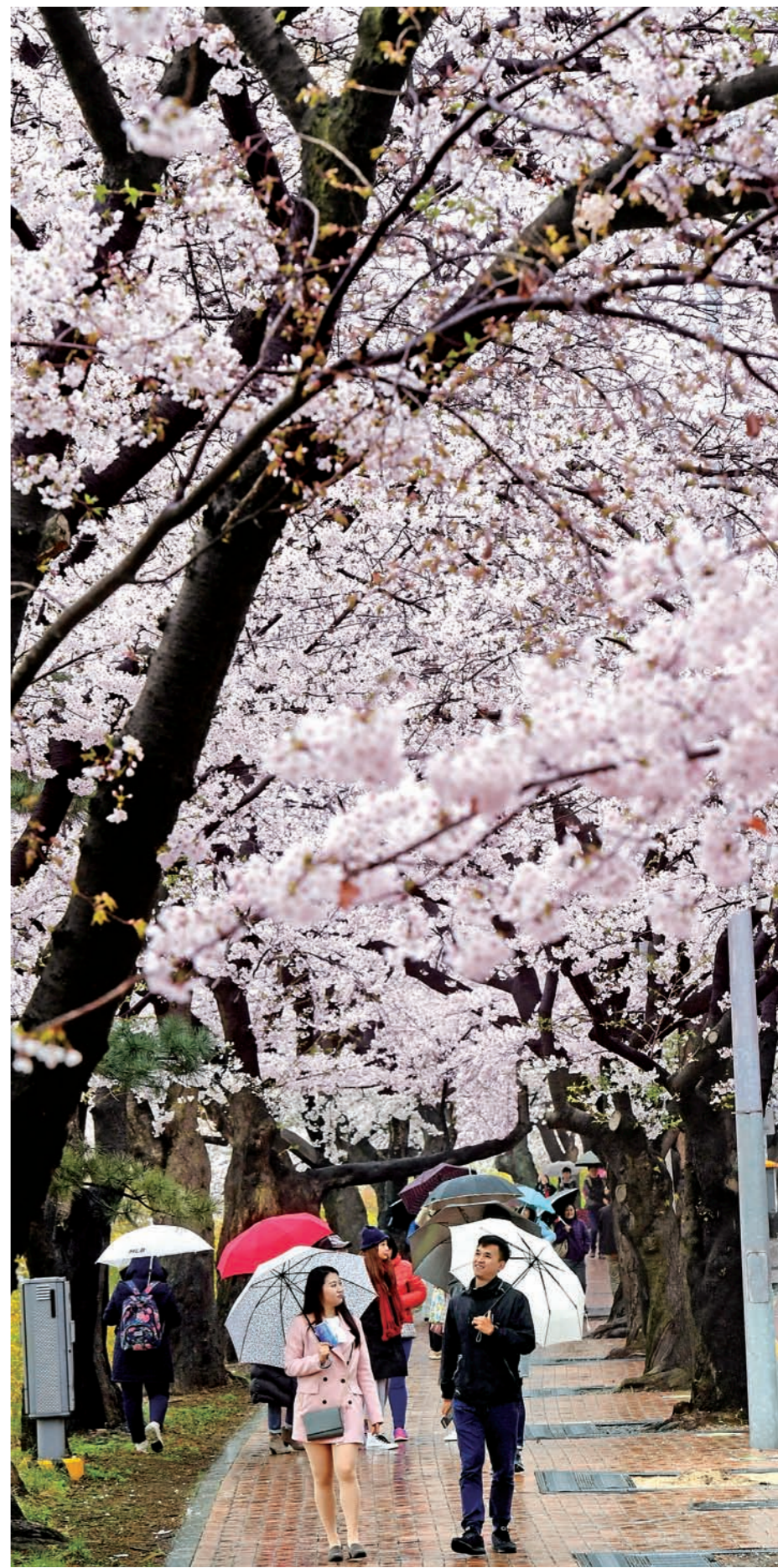
매가 늘어 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반도체와 스마트폰 실적 호조가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을 상쇄하며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X'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전량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아이폰X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은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2분기 역시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전체로는 영업이익 62조 원을 넘기면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영업이익 53조 6500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록 기자 syr@

봄꽃터널, 돌이 걸어요



봄비가 촉촉히 내린 5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 벚꽃길을 걷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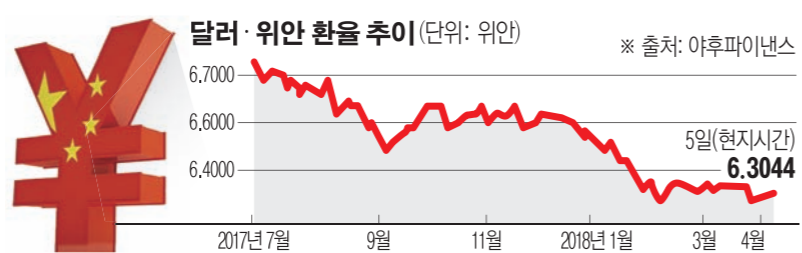
트럼프, 또 하나의 눈엣가시 '위안화'

글로벌 영향력 키우는 중 경제 무역전쟁 이어 환율전쟁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잇따른 관세 부과 발표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시동을 건 가운데 환율을 놓고 새로운 전쟁을 벌일 분위기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벤저민 코헨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캠퍼스(UC샌타바버라) 교수는 4일(현지시간)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트린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절고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2면

아직 트럼프 정부는 위안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해 경계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코헨 교수는 강조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을 포함해 수십 개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도 체결했다. 2015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가 편입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트럼프 이전 미국 정부는 중국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지만 비교적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기존 베팅은 모두 끝났다고 코헨 교수는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국제

금융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보다 위안화를 공격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이달 중순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직접적인 환율전쟁 선포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트럼프라도 위험 부담이 크다. 또 미국 달러화당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7%가량 오르고 올해도 약 3% 추가 상승해 명분이 더더욱 없다.

그러나 코헨 교수는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하면서 환율을 요긴한 무기로 써먹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파트너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의 결재에서 위안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중앙은행에 대해 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제공할 수도 있다.

환율전쟁도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최소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해외 자금 조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코헨 교수는 "트럼프는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환율전쟁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세계 최초 수소차 만들면 뭐하나... 정부 규제에 설 땅 잃어

환경을 위한 선택 수소에너지

현대차 '넥쏘' 정부 보조금 없어 계약취소 위기... 추경예산서도 빠져
충전소도 규제 막혀 '달랑 16곳'... 정책 엇박자 속 경쟁국은 저 멀리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FCEV) 양산에 성공했다. 기술력은 최고인데, 왜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가?

정부는 5일 4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대했던 수소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뺐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중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쓸 수 있는 수소전기차 정부 보조금 예산은 작년 이월분까지 더해져 최대 250대에 못 미친다. 반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 2만 대분의 보조금을 준비했다. 수소차 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NEXO

)는 지난달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1100여 대가 계약됐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보조금을 못 받는 800여 대는 계약이 취소될 형편이다. 수소전기차는 궁극적인 차세대 친환경차로 꼽힌다. 전기차(EV)는 사용 연료인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 또 다른 화석연료를 태워야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수소의 전기분해를 통해 스스로 전기를 뽑아낸다.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 정화 효과도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넥쏘 1대는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인프라가 확산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 주유소와 수소충전소를 병합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이중 연료에 대한 거리 제

한국	한·일 충전 인프라 비교	일본
2017년 기준 16곳 (2022년 총 180곳 계획)	규모	2017년 기준 105곳 (2025년 350곳 계획)
도로공사-현대차 SPC 설립 계획	설립주체	민관합동 11곳 특수목적사, 하임 출범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지원	정부지원	충전소 설립 비용 80% 정부 지원
이종연료 간 설치(거리) 제한	설치규제	이종연료 간 제한 없음

* 항공거리: 북미 기준 * 출처: 각 메이커, 국토교통부,日電産業院, 코트라

한이 존재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한 곳에 붙어 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의 도로변 설치도 불가능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충전소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주유소나 LPG 충전시설보다 방호벽과 안전기준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다. 예컨대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낮음에도 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일본은 셀프 충전을 검토 중이고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셀프 충전을 허용했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그닥 16곳이 전부다. 그러나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곳 7곳, 서울과 경기권에는 서울 상암동에 단 한 곳이 존재한다. 충전소 하나를

세우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설표준법 △도로법 등의 좁은 벽을 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차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에만 막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충전소를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결국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의 경쟁국은 인프라 확대를 앞세워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천명했지만 정작 예산 등에는 반영되지 않는 정책의 엇박자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손보사 온라인 판매 3년새 3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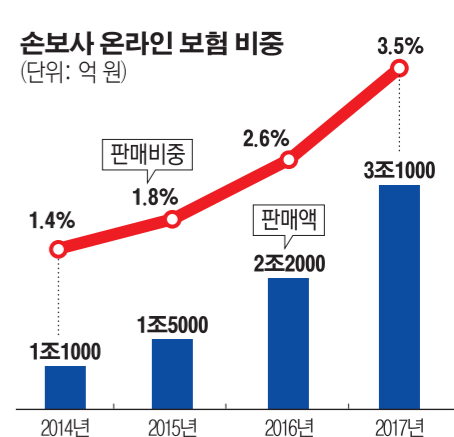
CM채널 판매율 첫 3% 넘어... 대면채널은 감소세

손해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보험 판매 규모가 최근 3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온라인(CM)채널로 판매한 원수보험료는 총 3조1000억 원이었다. 2014년 1조1000억 원에서 3년 만에 3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CM 채널 판매액은 2015년 1조5000억 원, 2016년 2조2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모집 채널 중에서 CM이 차지하는 비중도 두 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대면, 전화(TM), CM 등 전체 모집 채널을 통한 원수보험료에서 CM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였다. 2014년에는 1.4%, 2015년 1.8%, 2016년 2.6% 등 매년 커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CM 채널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과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며 "IT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고 내다봤다.



CM 채널의 성장세는 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돋보였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액 중 CM 채널은 18.8%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16.7%에 그친 TM의 비중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대면은 64.5%를 기록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5년 69%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1곳은 모두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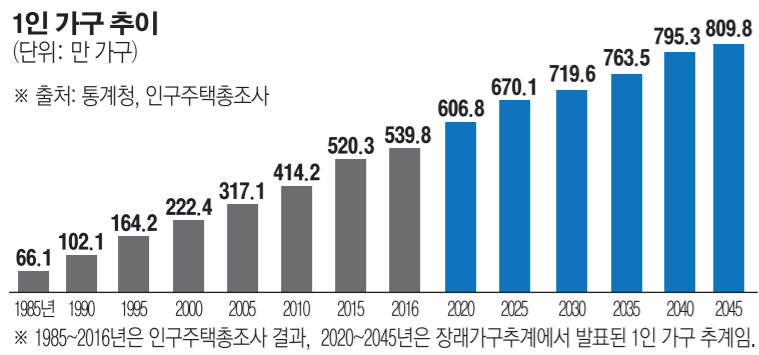
"고위직 절반이 여성"
양성평등 기업 '한세실업' ▶13

"초과이익환수제 위험 소지"
이슈&인물 김중규 변호사 ▶15

대자연이 빛낸 예술
국내 지질공원 6곳 ▶16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은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계속

데이터 뉴스 Data News



3가구 중 1가구 '나 혼자 산다'...혼인율도 '역대 최저'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1970년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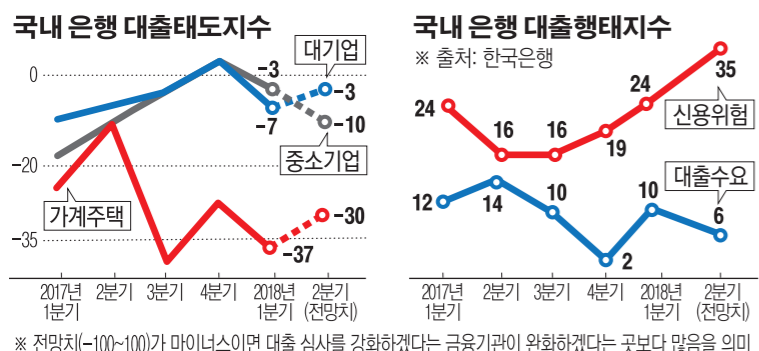
1985년 처음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로 8배 정도 증가했다. 전체 1937만 가구 중 27.9%를 차지했다.

이는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인 가구는 2020년 606만8000가구, 2030년에는 719만 6000가구로 예상돼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6년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 0.4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공식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비혼과 만혼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출산을 저하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대출 조이는 은행권...금리 상승기 채무상환 부담 증가

시장 금리가 본격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은행들이 대출을 더 옥죄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늘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14를 예상했다. 대기업(-3), 중소기업(-10), 가계(일반 -7, 주택 -30) 모두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 지수는 플러스(+)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완화 혹은 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혹은 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음(-)이면 그 반대다.

신용위험의 2분기 전망은 35로 2009년 1분기(동향 기준 38)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대출 수요는 중소기업(17)과 신용대출 부문인 가계 일반(3)을 중심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금후타이어와 성동조선에 이어 GM사태가 줄줄이 이어진 데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주현 한은 은행정책실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번 설문조사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美 "1000억 달러 추가 관세"에도 시장은 '낙관'

G2 '무역 갈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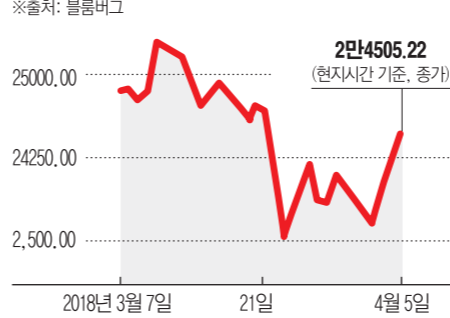
중정부, WTO 美제소 절차에 트럼프 '猛攻 수위' 더 높여

투자자들 "실용적 해결 기대" 뉴욕증시 3거래일 연속 올라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광판에 뜬 다우지수 증가. 이날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낙관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뉴욕/AP연합뉴스

다우지수 추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맹공을 펼치며 5일(현지시간) 무역 갈등을 최고 수위로 고조시켰다. 그러나 뉴욕증시는 3거래일째 강세를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 중국이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 합의 요청서를 미국에 요청함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양자 합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에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폭탄 투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0억 달러(약 106조 원) 상당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무역장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트위터에서도 공격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WP)가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도전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기사 제목을 쓴 데 대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과한 무역 제재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다고 고쳐야 한다"며 "무역 장애물을 없애고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WP의 보도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트위터로 "한 해에 5000억 달러의 적자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내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손해는 300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이날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99% 상승한 2만4505.22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일 대비 0.69% 오른 2662.84에, 나스닥지수는 0.49% 상승한 7076.55를 기록했다. 양국이 겹으로는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도 실제 무역 전쟁을 벌이지는 않

리라곤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의 과장된 트윗에도 투자자들은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TD아메리트레이드의 JJ 키나한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중국은 놀이터에서 가장 거친 두 아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싸우고 싶은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친 협상 태도를 보면, 과감하게 성명을 발표한 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놓고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퍼스널캐피탈의 크레이그 버크 애널리스트는 "당장 향후 20분간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코, 씨티그룹 등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EP웰스드라이버의 아담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근본적 펀더멘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1분기 기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주가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데이터 산업 육성' 동상이몽

업계 "전문인력 대부족...규제 개선해달라" 요청 정부 부처 엇박자...시민단체도 '개인정보 문제' 이견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 분야 수요를 마중물 삼아 클라우드 경쟁력을 키우려는 업계에 부처가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빔'을 제거하지는 않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과 데이터 산업 혁신 성장 방안 간 담화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등 관련 규제와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과 사업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 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규제 개선 방안을 둘러싼 부처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간 '동상이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어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했지만 업계 입장에선 과거 정통부와 달리 행정안전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와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다. 현행 정보등급 체계에선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관할하는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클라우드 전문업체 관계자는 "부처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체계가 달라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처 간 일관되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돼 업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의견도 여전히 갈렸다. 4차산업위 해커톤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끝장토론 끝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를 상업적 용도의 통계에 이용하거나 산업적 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재식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우)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400(북정동) 고객센터 TEL 052. 7030. 500 1644-227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1회 한함)

선임제도 안내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시행일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임자격

-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

양성교육 안내

교육대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 사업장당 2명 이상 신청 가능,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19년 선임대상인 20~30인 사업장의 경우 '18년 교육 이수 시 '19년 선임 가능

교육장소

-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사 교육장 등

준비물

-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력서 이수증 지참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 교육신청 ▶ 관할구역 선택 ▶ 교육과정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 확인

교육절차

교육신청서 제출 (사업장) → 대상여부 확인 (공단) → 신청서 접수 (공단) → 교육일정 통보 (공단/사업장) → 이력서, 신청서, 신분증, 이수증 제출 (사업장/공단) → 교육참여 및 이수증 발급 (사업장/공단)

* 집체교육 전 이력서 교육을 수료(학습진도 80% 이상 시험점수 60점 이상)해야 집체교육 참석 및 교육이수증 발급이 가능함

청년일자리 2.9조·구조조정지역 1조... '일자리 추경' 3.9兆 푼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 등을 위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은 올해 잡힌 정부 예산 3조 원에 추가로 2조90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1조 원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고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3조9000억 원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몫으로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 몫으로 1조 원의 재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초점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맞췄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 청년 취업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고용보험기금)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존 2

청년 중기 취업자에 年 1000만원 지원 전·월세 보증금 4년간 1.2% 저리 대출 2021년까지 18만~22만명 일자리 창출 군산·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실제수당 90%로 확대

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했던 내일채움공제를 1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5년간 청년 취업자가 720만 원을 내면, 기업 1200만 원(5년), 정부 1080만 원(3년)을 지원해 3000만 원을 만드는 구조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교통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엔 월 10만 원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여기에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신규채용 인원에 비례해 30명 미만은 1명 고용 시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명, 100명 이상은 3명 고용 시부터 지원금을 1인당 900만 원 지급한다. 또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

업은 1600만 원, 중견기업은 1200만 원, 대기업은 800만 원의 세금도 감면해준다. 창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기술혁신 창업을 하면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혁신적 생활 창업을 하면 3000개팀에 1500만 원의 성공률 용자를 각각 지원한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다만 이번 청년 일자리 추경이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돈'만 투입한 단기적 대책이란 비판도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5일 지정된 △산업위기지역 군산 △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실제수당의 66.7% 수준인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을 90%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는 자녀학자금의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박병립 기자 riby@·이정필 기자 roman@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지원 추경 개요	
청년 일자리(2조9000억 원)	
소득·주거·자녀양육 지원(1조7000억 원)	인건비 지원(1인당 900만 원), 목돈마련 지원(3000만 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3500만 원), 교통비(월 10만 원)
창업활성화(8000억 원)	기술혁신창업팀 바우처(1500곳·팀당 1억 원), 생활혁신 창업팀성공보증(3000곳·2000만 원)
취업기회 창출(2000억 원)	지자체 발굴 취·창업 사업예산 30~70% 국고 지원
선취업·후진학 지원(1000억 원)	고졸 중기 취업자 장려금(400만 원), 중기 취업자 대학 학비 지원(학기당 320만 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1000억 원)	군·제대 예정자에 우수 중기 매칭 서비스
구조조정 지원(1조 원)	
근로·실직자 지원(1000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실수당 66.7~90%), 생계비 용자지원 확대(1000만~2000만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4000억 원)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금리우대
지역경제 활성화(2000억 원)	소상공인용자 1000억 원 추가 공급, 군산·통영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예비비(2500억 원)	신규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정 대비
세제지원(9540억 원)	
중기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면제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청년 1명 채용 시 법인세 1000만 원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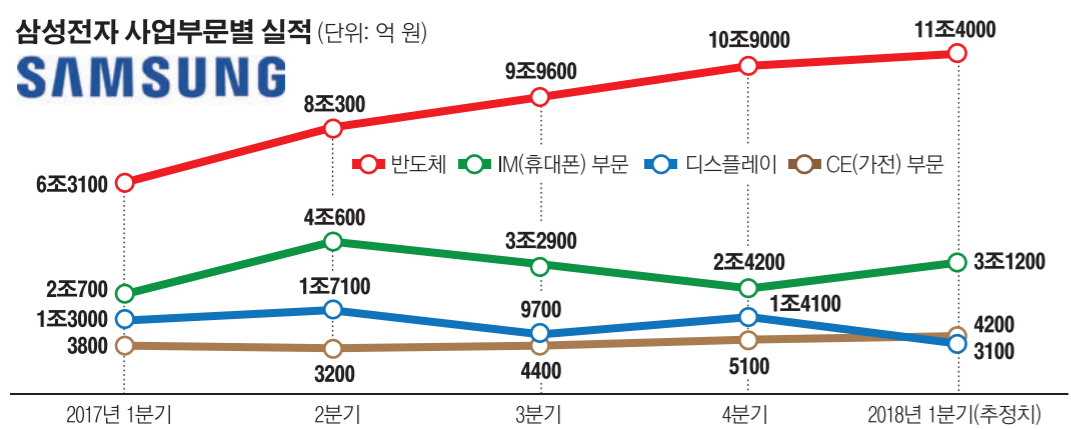
野 “선거 위해 현금살포” 반발... 국회통과 험로 예고

“호남 위해서라면 추경 고려해볼만” ‘캐스팅보트’ 민주당 거취 주목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현금살포’, ‘도박 같은 추경’ 등에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전남 논평에서 “올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 지형도에서

야 3당이 모두 합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293석 가운데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역시 여당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과 개별 야당 사이에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민주당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를 겪고 있는 호남지역 지원 예산 추가 여부에 따라 동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배숙 대표는 2일 “저희는 근본적으로 추경은 반대”라면서도 “호남 추경을 먼저 고려한다면 추경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삼성전자 1분기 서프라이즈 반도체·겔S9, 디스플레이 부진 덮었다

반도체 영업익 11조4000억 ‘선전’... 디스플레이, 1분기만에 1조1000억 ↓

삼성전자의 1분기 깜짝 실적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호조가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가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려면 디스플레이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반도체가 선전한 것이 확실시된다. 먼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무려 1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이 거둔 10조9000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1분기는 반도체 업계에서 계절적인 비수기로 꼽히고, 지난해에는 메모리반도체의 호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현상은 1분기도 지속됐다. 특히 서버용 D램이 호조였다. 글로벌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버용 D램 가격(DDR4 16GB RDIMM 기준)은 올 1월 159달러에서 2월 말 161달러로 올 들어 두 달 새 가격 상승폭이 1.9%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서버용 D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6.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플래시의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부문의 영업이익도 갤럭시S9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평균판매단가(ASP) 상승과 물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등으로 신제품 출시가 없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나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판매는 기대치보다 낮았지만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가전 사업을 이끌고 있는 CE부문은 전통적인 TV 판매 비수기 영향으로 4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사업부에서 예년보다 적은 30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스플레이 부문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한 애플 아이폰X 판매 부진과 중국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하락 영향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1조1000억 원가량 빠진 3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이폰X의 판매량이 낮아 OLED의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아이폰X 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60% 하락한 1500만 대로 추산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4/1 - 4/30

73년간 변함없이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주신 분들을 위해 올 봄 더 예쁘게 사시라고 예쁜 할인. 예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4월 아모레퍼시픽에서

예쁘게 사시

100

100원으로 예쁘게 사시~월

단돈 100원으로 화장품을 사는 예쁜 할인

대상 뷰티포인트 통합 멤버십회원
기간 4.1 - 4.7 매일 오후 4시

내용 일 리미티드 뷰티포인트 미소 발효 리프트 리리쿠버
월 미몽드 크리미티브 컬러밤 인텐스
화 한울 이리닉 수분진정수
수 리네즈 림슬리퍼마스크베리
목 아이오글 데어 리메이시카 크림
글 헤라 셀레센스 스테터 키트
토 설화수 윤조예센스

📄

급을수록 예쁘게 사시~월

스크래치 카드를 긁으면 놀라운 선물까지 갖는 예쁜 기회

대상 4월 한 달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기간 4.1 - 4.30

내용 SME6 병창고, 스타일러, 고프로 카메라, 디이슨 헤어드라이기 등 9가지 경품에 즉시 응모 가능

🎁

특별하며 예쁘게 사시~월

미션 달성하고 시월박스 받기 기회도 특별하는 예쁜 이벤트

대상 4월 한 달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3만 원 이상 3회 이상 구매고객
기간 4.1 - 4.30

내용 아모레퍼시픽 대표제품 15개 미니.이치로 구성된 시월박스 응모 가능

★

포인트쓰고 예쁘게 사시~월

얼마를 쓰든 매일 랜덤으로 1만포인트씩 쌓이는 예쁜 포인트

대상 뷰티포인트 통합 멤버십회원
기간 4.1 - 4.30

내용 매일 1만명에게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10,000 지급 *당첨 후 바로 사용 가능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전국백화점매장 / 아모레커운셀러 / 리리코스뷰레이터 / 아리따움매장 / 아리따움몰 / 대형마트 / APmall / 홈쇼핑

자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때 외부위원 포함 심의족 의결

자본금 5조...7월 출범 정원 101명으로 확정 부산 지역에 설립키로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우선 101명의 정원으로 출범한다. 또 투자·보증사업 지원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해양진흥공사의 설립·운영과 관계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준석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담은 정관을 비롯해 초기 직제와 직원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공사는 3개 본부(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로 구성되고 정원 101명으로 출범하며, 채용 절차를 진행할 기관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의 주요 업무인 해운항만 자산에 대한 투자·보증사업 규모도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라 향후 공사의 투자·보증사업 지원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에 납입 자본금 3조1000억 원으로 출발한다. 납입자본금은 공사 통합기관 자본금(1조5500억 원)과 정부 출자금(1조5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납입자본금은 필요시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10조 원 규모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부산 지역에 설립되는데 최근 부산시와 사무실 위치, 임대료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공사는 해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금융 부문 경영 건전성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한다.

강준석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사의 조직과 기본 운영규정이 확정돼 공사 설립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공사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해운업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년간 해양진흥공사 5조 원, 공적자금 3조 원을 포함해 8조 원을 투입, 200척의 선박을 새로 만들기로 한 바 있다. **곽도훈 기자 soqood@**

고용위기지역에 4400억...밀빠진 독 물붓기?

일시적 경제부양 효과...전문가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보해야”

정부가 군산과 통영 등 조선·자동차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예상되는 지역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총 1조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지역 협력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규모도 1단계 대책 당시 24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2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주는 등 각종 정부 지원을 우선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 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를 겪는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장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

원업종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1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2단계 지역대책 핵심은 기업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기업·협력 업체 퇴직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들에 최대 1인당 30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실직자들은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기업이 주는 수당의 9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해당 지역 협력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규모도 1단계 대책 당시 24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2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도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신규 창업하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동시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난해 6월 22일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자칫하면 ‘밀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영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3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금을 쏟아부어도 일시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엘리 기자 ellee@**

2022년 造船 수주량 회복 때까지 버티게... 5.5조 공공發注

산업경쟁력 회의, 대우조선은 매각 추진

정부가 국내 조선사 일감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5조 5000억 원을 들여 40척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추진한다. 지난해 위기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매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2년이면 2011~2015년 수준으로 수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조선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까지 일감 확보를 위해 군함, 순

찰선, 밀수감시정 등 공공선박 4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후 최종 확정된다. 또한, 국내 선사들이 조선사에 2020년까지 200척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중장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대우조선의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중형 조선사들은 자발적인 합종연횡에 나서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고, STX조선해양은 9일까지 고강도 지구안에 대한 노사 협약서가 오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남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매년 1~2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시범 발주한다. 2022년까지 자율운항 시스템 등을 갖춘 컨테이너선 개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올해 3월 기준 10만 명인 조선업 고용 인원이 2022년 12만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2018~2022년 연평균 3000명 채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일부 조선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연평균 3000명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4월 생산직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조선사 관계자는 “현재 업황과 국내 조선사의 수주·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일자리안정자금 원활히 집행 외식비 안정...비용부담 완화

5일까지 48만개 사업체 156만명 신청 체감불가 높은 무·쌀·오징어 공급 확대

정부가 최근 일부 급등한 농수산물 품목의 수급 안정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고령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체감불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무는 비축물량(600톤) 탄력 방출, 할인판매 계약재매물량 조기 출하 등을 통해 무 수급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쌀은 정부 쌀 8만4000톤 방출 등을 통해 적정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감자와 견고추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감소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산물 비축사업(올해 863억 원)을 통해 정부 비축 물량을 수시 확보하고 민간 보유물량 방출명령도 적절히 활용해 필요시 적기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체감도가 높은 외식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월부터 신청이 크게 늘면서 신청자수가 5일 기준 15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48만 개소가 신청했고 이중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신청자의 71%를 차지한다. **곽도훈 기자 soqood@**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株總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해 4월 이후에도 열 수 있게 ‘슈퍼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박용진 의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총회일 4주 전에 株主 통지도

국회에서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주주들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주주총회 문화를 정착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상장법인들은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왔다.

그러나 보니 올해 주총을 예고한 상장사 중 91%(코스피상장사 744곳 중 629곳, 코스닥 상장사 1197곳 중 1139곳)가 3월 마지막 2개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처럼 3월 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말 새도보링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

지된 후 의결권적수를 채우지 못한 76곳의 상장사들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3월 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하게 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또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겼다. 더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박 의원은 내실 있는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4주 전까지 주총 소집 통지를 하도록 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 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총참여 주주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지방교부세 3.1조·교육재정교부금 2.9조 추가 교부

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의해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6조 원,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2조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해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활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부세와 교부금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4월 27일)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해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배분 계획은 △서울 3832억 원 △부산 2351억 원 △대구 2516억 원 △인천 1917억 원 △광주 1110억 원 △대전 1302억 원 △울산 772억 원 △세종 1544억 원 △경기 9554억 원 △강원 4279억 원 △충북 2936억 원 △충남 4310억 원 △전북 4026억 원 △전남 5662억 원 △경북 6370억 원 △경남 5113억 원 △제주 1319억 원 등이다.

유보금 848억 원까지 총 5조9762억 원 규모다. 유보금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 등 관련수요 발생 시 활용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사법 사상 첫 TV생중계 끝내 나타나지 않은 차

오늘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선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8개 혐의에 대한 벌원 판결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등의 혐의에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공판은 법정에서 설치된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된다. 1일 평균 수만 명이 출입하는 서울법원종합정사는 질서유지 목적으로 일부 출입문이 통제된다. 법원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난가처분 신청을 공익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차, 공범崔와 혐의 18개 중 13개 겹쳐 징역 2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에서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 씨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친박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박은병 기자 silverline@

경북 칠곡군 'F-15K 전투기' 추락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에 추락한 F-15K 전투기. 짙은 안개속에 연기가 나고 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전투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군과 소방당국은 이날 밤 조종사 2명 중 최초(29) 대위 시신을 발견했으며, 함께 탄 박모(27) 중위의 생사도 확인 중에 있다. 연합뉴스

전국 유치원·초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호흡기질환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실내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 $\mu\text{g}/\text{m}^3$ 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 μm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 $\mu\text{g}/\text{m}^3$)만 있었다.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37.6%)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2700곳,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

소에 공기정화 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년간 총 2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 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아울러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은병 기자 pepe@

군산·거제·통영 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취업 지원·생계비 용자 한도 등 확대 조선업 지원업종 지정도 6개월 연장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다시 연장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위기지역은 향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

는 기존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STX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정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용자한도도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용자 한도를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해,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은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로,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박은병 기자 pepe@

“수사과정서 증거조작 발견”... 檢, 대립 피의자 2명 석방

하청업체에서 뒤통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대립산업 임직원 2명이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뒤통을 받아 청진 혐의를 받는 대립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사건 당시 핵심 증거로 경찰 수사 당시 제출했던 지출결의서를 수사기관에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보자 역시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돈을 수수한 혐의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계속 수사하는 단계”라며 “절차

적 정의도 실제적 진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보자가 장기간 작성했다고 주장한 해당 문건의 필체가 유사한 점을 이상하다고 판단, 직원들과 제보자를 추궁했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4600만 원 고금 외제차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씨 역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제보자를 증거위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사장 항소심도 혐의 부인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사장 측은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한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삼성생명·한화생명·롯데카드·교보생명·DB손해보험·미래에셋대우·현대캐피탈

대표회사로 내부거래·위험관리 주도

대부분 지배구조 최상위사 보고
미래에셋은 가장 큰 증권사 선정
당국, 6월 말~7월 초 최종 결정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실시 되는 가운데, 감독대상 7개 기업집단 대부분이 지배구조에서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 회사로 선정했다. 다만 지배구조 관계가 없거나 최상위 금융사의 규모가 작은 곳은 자기자본이 가장 큰 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인 7개 복합금융그룹(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은 각각 삼성생명, 한화생명, 롯데카드,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을 대표회사로 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대표회사는 감독당국 보고,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부거래와 계열사 간 동반부실 위험과 같은 건전성 관리도 대표회사가 수행한다. 이 때문에 향후 이곳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대표회사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은 금융그룹의 최상위 회사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의 지분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의 대표회사

※굵은 글씨가 대표회사, 화살표는 지분구조

삼성	삼성생명 →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한화	한화생명 →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
롯데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교보	교보생명 →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생명자산운용 등
DB금융	DB손해보험 → DB생명보험, DB캐피탈, DB금융투자 등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대우 → 미래에셋생명
현대차	현대캐피탈, 현대차증권, 현대커머셜 → 현대카드, 현대라이프생명

보유하고 있다. 한화생명 계열은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이다. 교보생명과 DB손해보험은 캐피탈, 금융투자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그룹 정점에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집단에서 가장 큰 회사다. 미래에셋 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34.3%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캐피탈

이 미래에셋대우 지분 18.6%, 미래에셋생명 지분 19.0%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지분 19.0%를 보유한 순환출자 구조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롯데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다른 금융사와의 지분구조가 없다. 롯데의 금융사 중 지분 관계가 있는 곳은 롯데캐피탈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4.6%가 유일하다. 롯데그룹은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지주사법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지분을 2019년 10월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비와 일반지주사 현안 등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금융사들은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없다. 금융 계열사들 간에는 현대커머셜이 현대카드(24.5%), 현대라이프생명(20.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동반부실 위험평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인 6월 말~7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운 기자 gamja@

경영실태 '성차별' 채용 문제까지 확인

금감원, 전형단계별 男女 비율 사전할당 등을 상반기부터 하나·우리·씨티銀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관리 위주로 검사해 온 경영실태 평가에서 처음으로 젠더(성) 차별 채용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영실태 점검 시 젠더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장 올해 경영실태 평가 대상인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부터 성차별 채용 문제를 점검받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상반기 KEB하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우리은행, 씨티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점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CAMEL-R)는 당국이 은행 건전성 관리와 경영관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종합검사다. 구체적으론 자본(C), 자산(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가지로 조사한다. 은행은 격년으로 경영실태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금감원은 경영관리(M) 항목을 통해 채용 등 인사정책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성)까지 포함해 채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경영실태 평가의 초점은 경영관리보다는 은행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맞춰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 평가 시 인사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학력과 경력 등에 따른 차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올해부터 나가는 경영실태 평가에선 학력, 경력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도 점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장 올해 경영실태 평가를 받게 되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씨티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했는지 점검받게 된다. 이번에 KEB하나은행에서 적발된 것처럼 전형 단계별 남녀 비율 사전 할당, 면접 점수 조작 등이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경영실태 평가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도 검사받는다.

6개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지난해 경영실태 평가를 받은 만큼 이들은 내년에 성차별 채용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 여성 근무연수도 길고, 유아휴직 등 복지도 잘돼 있는 편인데, 너무 은행에만 높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년에 한 번 점검 나가서 3~4주 내에 모든 걸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인사관리 문제는 검사의 초점이 아니었다"며 "이번에 원장이 젠더 문제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성차별 채용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농협銀, 동남아 중심 無계좌송금 서비스 확대

외국인 근로자·기반 취약 현지 특성 고려
해외시장 확대 전략 연내 필리핀·인도네시아 오픈

농협은행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계좌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과 은행 계좌기반이 취약한 동남아 현지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중 필리핀 '메트로 뱅크(Metro Bank)'와 협력해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만다리 은행(Mandiri Bank)'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 1월 오픈한 베트남 'NH-AGRI 무계좌 해외 송금'에 이어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계좌 해외송금은 은행 계좌번호 없이 받는 사람 이름과 송금번호만으로 현지 제휴 은행 전 지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영업점을 통해 보낼 때 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AGRI 무계좌 해외

송금'은 출시 2개월 만에 '올원뱅크'를 통한 이용금액이 13만 불을 기록했다"며 "연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오픈을 완료한 후 향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와도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 시중은행들은 2016년부터 동남아 지역에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지난해부터 80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중인 KEB하나은행은 지난달에 '월류 트랜스퍼(1Q Transfer)'의 필리핀 지역의 비은행 송금 수취 채널을 늘렸다.

KB국민은행의 'KB ACCOUNT FREE'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 같은 은행들의 해외송금 서비스 강화는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는 은행별로 해외 네트워크에 추가 거래를 유도하고 진출국에도 은행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fullmoon@

카드사, IoT기술 활용 '디지털금융' 가속도

공유자전거·기프트카드 등 협력관계 구축
검색엔진 접목 '非금융 검색' 서비스 도입

카드업계가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손을 잡고 자체 플랫폼을 확대하는가 하면, 그간 쌓아온 결제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디지털금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글로벌 공유자전거 사업자 오포(opo)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자전거 시장 확대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오포와의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플랫폼 확장뿐만 아니라, IoT 결제시장 선점을 노린다. 최근 신한카드는 글로벌 IT기업 우버(Uber)와 디지털 플랫폼 연계, 신사업 발굴 협력 등 디지털 생태계 제휴를 맺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쿠폰을 발급하는 등 앱카드 '신한FAN' 플랫폼 확장과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이달 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해외 인기패션 사이트 검색 엔진 '피코'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통상 금융사의 결제 정보가 단순 통계자료 정도로 활용된 것과 달리 20억 건에 달하는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과 검색엔진을 접목시킨 비금융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결제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 '로카'를 공개한 롯데카드는 카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챗봇 마케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용내역 조회, 즉시결제, 분실신고 및

카드사 타 업종 사업 제휴 현황

회사	내용
신한카드	IoT 기반 공유자전거 사업 제휴
현대카드	결제정보 기반 패션검색 엔진 '피코' 출시
롯데카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로카' 오픈
삼성카드	제약사와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협력 체결
하나카드	교육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제휴 협약
국민카드	빅데이터 중개·거래 플랫폼 구축 협약
우리카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업무협약

재발급 등 주요 카드업무 '로카'와의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상담원의 역할과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고 롯데카드는 설명했다.

또 우리카드는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모바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하나카드는 하나은행과 함께 교육서비스 제공업체 정상 제이엘에스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 컨설팅 업체인 지디에스컨설팅그룹과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빅데이터 거래-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며, 삼성카드는 대원제약과 빅데이터-디지털 기반 마케팅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사업영역 확대 등을 위한 해법을 디지털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올해 각각각색의 디지털, 빅데이터 관련 상품과 마케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www.douzone.com **DOUZONE**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짧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원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원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국가 공인 전자서명인증이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IT관리비용 절감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업체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원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정보로 생성
- 회계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성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등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당신의 **봄**

엄마가 RC가 되고부터,
**아침밥상에
봄이
왔어요**

우리 집 아침 풍경이 달라졌어요
따끈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아빠 쿫노래를 불러요

아침 일곱시, 모두가 바쁘는데
모두가 즐거워요
웃음 꽃이 피어요
아침 밥상 위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삼성화재 RC와 함께
인생의 봄을 만드세요!**



삼성화재 RC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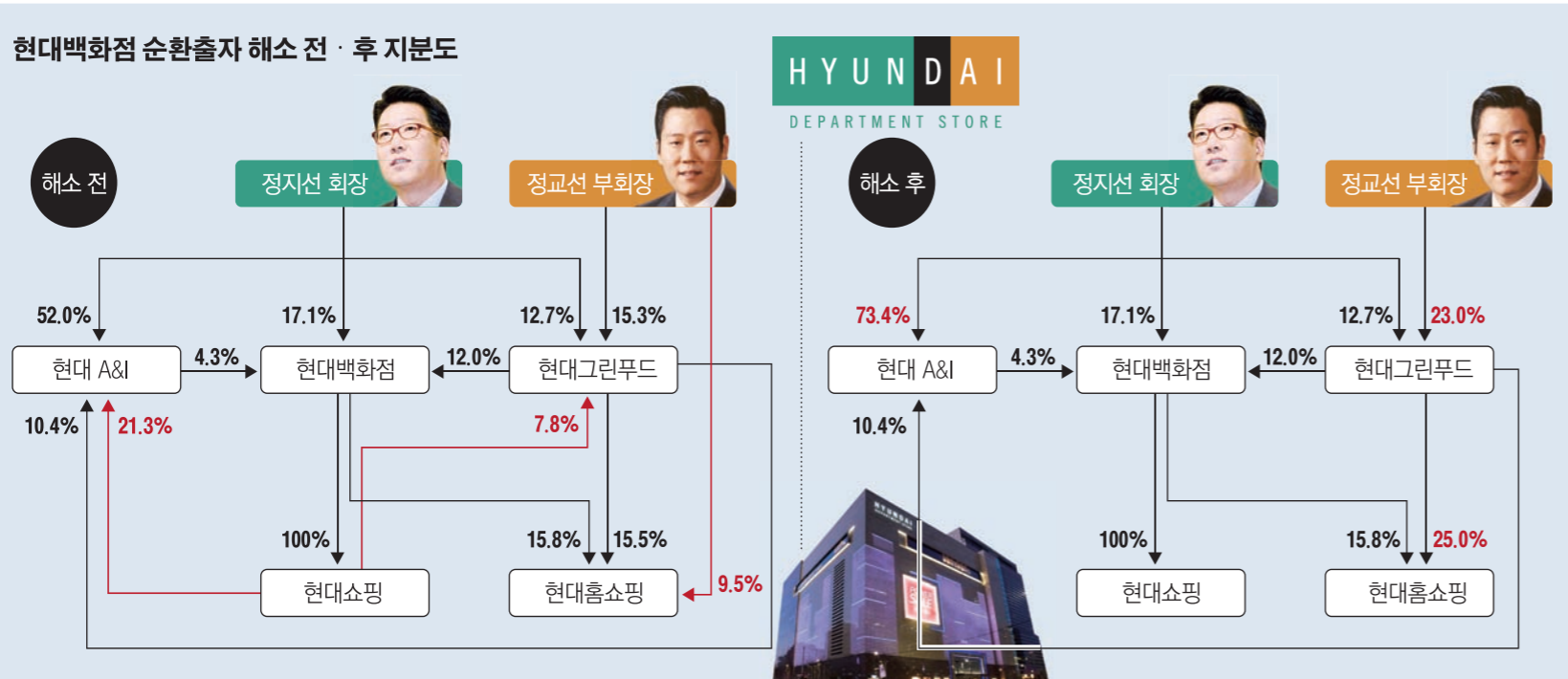
삼성화재 RC란? 리스크 컨설턴트(Risk Consultant),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금융인입니다.

서울 강북권 070-7111-3202 | 서울 강남권, 강원권 070-7111-3206
서울 강서권, 인천권 070-7111-3201 | 경기권 070-7111-3207
충북, 충남권 070-7111-3208 | 전북, 전남, 제주권 070-7111-3204
부산, 경남권 070-7111-3203 | 대구, 경북, 울산권 070-7111-3205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현대백그립 '경영 투명성' 강화 순환출자 고리 끊고 VR 키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교선 형제가 사재를 직접 매입·매각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정리한다. 이와 함께 그룹 내 IT(정보기술) 사업 법인을 신설해 VR(가상현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VR사업을 육성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5일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쇼핑이 각각 이사회를 열어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해소는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직접 계열사 간 순환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 회장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지분 21.3%(5만1373주)를 매입해 '현대백화점 → 현대쇼핑 → 현대A&I →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757만 8386주)를 매입해 '현대백화점 → 현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 사재 털어 지분 직접 매입·매각
鄭회장 A&I지분 73.4%로... 鄭부회장 그린푸드 지분 23%로

현대그린푸드 IT부문 분리 현대IT&E 설립... VR사업부 신설
이르면 10월 VR테마파크 1호점... 2년내 10여개 오픈 계획

대쇼핑 → 현대그린푸드 →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진 출자고리를 끊었다.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서 '현대백화점 → 현대쇼핑 → 현대그린푸드 → 현대A&I →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순환출자 고리는 자동으로 해소됐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소요된 자금은 정 회장이 현대A&I 지분 매입을 위해 약 320억 원을 은행에서 차입했고, 정 부회장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쇼핑 주식 전량(9.5%, 114만 1600주, 약 1200억 원 상당)을 현대그

린푸드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 정 회장의 현대A&I 지분은 52%에서 73.4%로 늘어났으며, 정 부회장의 현대그린푸드 보유 지분은 기존 15.3%에서 23.0%로 증가했다. 현대쇼핑의 최대주주도 기존 현대백화점(15.8%)에서 현대그린푸드(15.5%→25.0%)로 변경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그룹 IT사업부를 현대그린푸드에서 물적 분할해 별도 IT 법인인 '현대IT&E(현대아이티앤이)'도 신규 설립한다. IT와 엔터테인먼트를 의미

하는 현대IT&E에는 기존 IT사업부에 새로 'VR(가상현실) 전담 사업부'가 만들어진다. IT사업부는 기존 그룹 전산관리 작업 외에 다양한 IT 관련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VR사업부의 경우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아울렛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거점 등에 대규모 VR 테마파크를 조성,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르면 10월경 VR 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향후 2년 내 10여 개 이상의 VR 테마파크를 연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재원 마련과 세금 부담에도 사재를 출연해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주주권의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높아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2016년	2017년	
매출	4조5848억	5조280억	10% 증가
영업이익	-8334억	-4068억	4266억 원 개선
당기순이익	-4842억	-1조2088억	
부채비율	349%	298%	51%p 개선



정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

현대상선 "2분기 최대 20척 선박 발주"

항만 인프라 확보도 박차

현대상선이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발맞춰 상반기 내 초대형 선박 발주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벌써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보내기 위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대상선은 6일 "국내 대표 원양 컨테이너선사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선박 발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정부는 해운재건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이전이라도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은 올 상반기 중 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12척과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을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00만TEU

급 규모로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현재 현대상선의 선박량은 33만TEU로 세계 14위 수준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선사들이 지난해부터 선박 발주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박 발주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진들이 이미 선박 발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신규 발주 선박들을 유럽 노선에 2만2000TEU급 12척, 미주 노선에 1만3000TEU급 8척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해외 주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등 물류거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현대상선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던 현대부산신항만을 되사오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는 등 항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성영 기자 moon@



한국지엠(GM)이 자금난 탓에 6일 지급이 예정된 '2017년도 성과급'을 결국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5일, 한국GM 노조가 인천 부평공장 사정실을 점거했다. 사진제공 한국GM

김동연 부총리 "원칙대로 구조조정 추진"... 법정관리 신청 사흘 앞으로

STX조선 勞使합의 못하면 2500명 짐싼다

법정관리 댐 청산에 무게
노조 "인력 구조조정 철회" 요구
회사측, 희망퇴직 추가 접수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관리 신청 시 STX조선은 회생이 아닌 청산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청산이 결정되면 STX조선해양 직원 140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1100명은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9일 이전까지 노사 합의의 간극이 부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합치는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합치는 화요일부터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추가로(합의) 진행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정부와 채권단의 고정부 축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월일	내용	연월일	내용
2013년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로 전환	2017년 7월	법정관리 출업
2014년 4월	상장폐지	11월 21일	실사결과 발표, 청산(가치) 존속가치 산은 "자구인 합의 못하면 법정관리"
2015년 11월	노조, 구조조정안 조건부 수용	2018년 3월 8일	노사, 자구인 논의 시작
12월	채권단, 중소형 조선사 특화로 확정	4월 2일	희망퇴직 및 아웃소싱 추가접수 시작
2016년 4월	채권단, STX조선 재무 및 경영상태 재실사	4월 6일	
5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노사 합의에 실패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종착지는 청산이 될 전망이다. 회생과 청산 결정 기준은 사업성이 고 조선업의 사업성 판단 기준은 수주 잔량이다.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선주사의 신뢰를 잃어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보유 중인 물량도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외부로의 인수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데, 건조물량이 줄어들면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수주잔량은 옵션 계약을 포함해 총 17척이다.

회사는 최후통첩에 나섰다. 장운근 STX조선해양 사장은 6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할 때

노사 합의를 통한 자구계획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6일부터 8일 오전까지 추가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신청한 인원은 115명으로 최종 목표(500여 명)의 약 20% 수준에 그쳤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국GM사태 '악화일로'

"성과급 지급 연기" 방침 정하자 노조, 사장실 점거

20일 자구안 마련도 빨간불

한국GM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측이 성과급 지급 연기 방침을 정하자,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들었다. 이에 따라 GM본사 측이 언급했던 부도 시점인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실패는 곧 부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실패는 곧 부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실패는 곧 부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GM 노조는 5일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류를 파손했다. 자금난에 직면한 한국GM이 성과급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히자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50여 명의 노조원은 현관 보안문을 부수고 사장실에 들어가 카허 카젠 사장에게 성과급 지급 연기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사장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장실과 비서실,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은 쇠파이프를 들어 서랍장과 의자, 책상 등 사장실 갈등을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10일에 줄 현장직 4월 임금과 25일 사무직 임금, 27일 희망퇴직자 위로금 등 60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리 영길 GM 본사 해외사업부 사장은 "4월 20일까지 노사 합의를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적인 카허 카젠 사장과 언어적 으로 소통하는 데 문제를 겪은 한국GM 노조원들은 전문명 한국GM 기술연구소장(부사장) 집무실로 이동해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겁에 질린 부사장에게 지속적인 요구하던 한국GM 노조원들은 약 30분 후 자진 해산했다. 카허 카젠 사장은 "직원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

고 회사의 자산을 파손한,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경찰·정부에 신고하고 징계·소송 등 합당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카허 카젠 사장은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6일 지급하기로 약속한 2차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GM은 6일 직원들에게 지난해 성과급 중 절반인 1인당 약 450만 원(총 720억 원 규모)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번주 중 노사 교섭에 따라 GM 사태가 극적 회생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는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다. GM본사는 신차 배정을 약속했고, 한국GM은 회생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무실사를 진행 중이다. 경영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10일에 줄 현장직 4월 임금과 25일 사무직 임금, 27일 희망퇴직자 위로금 등 60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리 영길 GM 본사 해외사업부 사장은 "4월 20일까지 노사 합의를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사우디 原電 쇼트리스트 임박 '21兆 잭팟' 한발 더 다가설까

6개국 입찰 참여, 이달말 2~3곳 압축 韓, 예비사업자 선정까지는 무난 전망 바라카 原電 '3세대 기술' 성공 바탕 사우디 우방국 UAE와 컨소시엄 검토

총 사업비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발전소 예비사업자(쇼트리스트) 선정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건설사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6개국이 1차로 제출한 상용 원전에 대한 RFI(기술정보요구서) 답변서를 바탕으로 이달 중 예비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RFI는 발주처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업체들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 등 원전 건설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2~3개국이 예비사업자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업자 선정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UAE의 바라카 원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 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라카 원전에 사용된 3세대 원전인 APR-1400은 2016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 3단계를 통과했는데 미국에서 자국을 제외하고 이 인증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UAE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자이드 왕세제가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멘토'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절친한 것 역시 우리에게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UAE를 방문했을 당시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원전 수

주전을 위해 한국과 UAE 양국은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번에 발주한 원전은 2기(총 2.8GW)로 사업비는 21조 원(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현재 0%인 자국 내 원전 비중을 2040년까지 15% (원전설비 기준 17.6GW)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방안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만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통상 2기씩 한 번에 시공하는 원전의 특성상 첫 2기를 따내는 나라가 이후 수주전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게 된다.

하지만 원전 강국들이 모조리 이번 사우디 원전 공사를 노리는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 왕세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했다.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 원전 수입국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란과 역대 파관 경쟁을 벌이는 사우디로서는 이번 조건으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됐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사우디 국왕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원전 분야 협력을 논의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프랑스의 원전 기술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전 선진국들이 모두 뛰어들 경우 결국 누가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발주처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내놔야 수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공공분양 확대 최선, 올해 1만2000 가구 착공”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신혼희망타운 두 군데 분양 목표 가격 낮추고 가변형 설계 실용성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주택 착공과 분양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1만2000여 호의 분양주택 착공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가운데 올해 안에 분양될 주택은 7000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공공분양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1970~1980년대 주공아파트를 많이 분양했으나 최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분양은 5000호 정도 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그러나 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연간 2만6000호 정도를 분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연간 공급하는 물량을 웃도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두 군데 분양을 목표로 한다”며 “유력 후보군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공공분양에 중점을 두면서 저렴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설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가격과 품질 강화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제공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고급 내장재는 가격 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가변형

설계 등과 같은 쓸모 있고, 또 하지않는 특정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다.

LH는 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이다. 박 사장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브랜드 TF를 만들었다”면서 “분양 업무와 관련해 밖에서 경력직을 영입하는 것보다 건설사 등과 외부 협업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한 하지않는 공사를 위해 ‘기능장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마무리 공종 9개(도배, 방수, 설비 등)에 경력 20년 이상의 마스터를 뽑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들은 ‘LH기능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현장 감독 평가 등 지도 역할을 맡는다.

박 사장은 “기능 등급제를 도입해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다음번 LH 현장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해 전문 건설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사장은 올해 부채 규모를 60조 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원칙은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금융 부채 기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76조 원이었고, 올해는 60조 원대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서울 오피스시장 지형도가 바뀐다

‘광화문·여의도·강남’ 3개 축 벗어나 강서 마곡으로, 강동구 상일동으로... 기업들, 인프라 좋은 신혼지구 새 등지

국내 3대 오피스 밀집 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외 지역의 업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3대 업무지구 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이 3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2018 서울 오피스 임차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7년 서울 시내 3대 주요 오피스 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대기업 오피스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역의 대기업 입주자 전년인 2016년 42.6%에서 35.6%로 -7%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의도는 36.5%에서 35.9%로 -0.6%p 감소했다. 강남권역의 경우는 전년 32.0%에서 3.7% 증가한 35.7%였다.

이 같은 대기업 오피스 수요의 3대 권역 이탈은 개

발로 인해 이전보다 오피스 공간으로서의 업무 여건이 훨씬 좋아진 다른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시내 3대 오피스 중심지 이외의 각광받는 지역으로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강서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곡지구 입주자 중 하나인 LG CNS와 협력해 ‘마곡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LG그룹은 LG CNS를 비롯해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시설을 집약한 LG사이언스파크를 마곡지구에 입주시켰다. 여기에 롯데그룹과 코오롱그룹 역시 연구시설과 계열사 일부를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 밖에 유통기업 이랜드 역시 2020년까지 마곡지구로 그룹 사옥을 이전할 계획이며,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건설부문은 강남권인 서초구에서 강동구 상일동의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으로 이전이 결정되는 등 서울 3대 오피스 지구를 벗어나 동지를 트는 대기업은 점차 늘어난 전망이다.

김정용 기자 cogito@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여파 강남 3區 거래 유독 줄었다

감소율 60~70%대... 서울 평균보다 높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본격화된 4월 들어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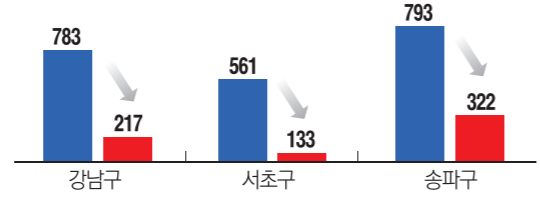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강남 3구 비중은 20% 수준으로 4월 현재(4월 기준)는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아파트 거래량을 일수로 나눠 한 달 거래량을 예측할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217건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보다 72.2% 감소한 수준이다. 서초구 또한 133건으로 3월보다 76.2% 감소, 송파구는 322건으로 59.3% 하락할 전망이다. 서울 평균 54.9%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 3구 모두 이를 앞지르는 감소율을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제는 양도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호기를 올리는 상황이고 ‘뿔뿔한 한 채’로 인기 지

양도세 증가 4월, 위축된 강남 3구 아파트 거래

*전망치 : 4월 기준 일평균 거래량으로 추정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역에서 버티고 있는 매도자 또한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3월까지 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위해 일론 팔려는 매물들이 있어서 호가가 한때 떨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올랐다”며 “수요자들은 높은 호가에 대한 부담이나 정부 규제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로 관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평균 대비 아파트값이 저렴한 자치구는 거래량이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역시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시세가 낮은 곳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차원의 거래는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www.shinhaninvest.com
1588-0365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쉬운 자산관리 시대가 활짝!

[신한아이알파]

누구에게나 쉬운 원스톱 자산관리앱

복잡한 자산관리를 단 하나의 앱으로!
신한금융투자자 자산관리의 새 시대를 엿보다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343호(2017.09.30~2018.09.30)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8385호(2017.09.30~2018.09.30)

프로들의 자산관리 | 신한금융투자

지지율 1위 룰라 감옥으로 브라질 증시는 환호했지만...

10월 '3선 도전' 사실상 불가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3선 야망이 무너졌다. 부패 스캔들에 따른 구속으로 10월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시장은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브라질 정국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새벽 룰라 전 대통령의 불구속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은 룰라에게 6일 오후 5시까지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9년 건설회사 OAS가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뇌물 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올해 1월 말 2심에서는 징역 12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상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는 체포 명령을 내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진 출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룰라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무산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선거운동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재임한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좌파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재임 기간 브라질 경제를 성장시켜 퇴임 당시에도 높은 인기로 8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6%로 선두를 달렸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거치며 브라질 경제가 침체하자 수년간 브라질 정치판을 이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2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율은 10% 중반으로 룰라 전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룰라 지지자들은 "정치적 박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FT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전에도 룰라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전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형사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시장은 룰라의 퇴장을 환영했다. 이날 상파울루증권지수보베스파지수는 1% 상승했다. 아이셰어스 MSCI 브라질상장지수펀드(ETF)는 장중 최대 2.4%까지 급등했다. 좌파의 상징인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테메르 대통령이 시행한 시장 친화적 정책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로렌스 브라날드 TSB롬바르드 이머징마켓 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기자들과 상파울루/로이터연합뉴스 눈을 마주치고 있다.

불구속 재판 요청, 대법서 기각 뇌물 혐의로 1월 2심서 12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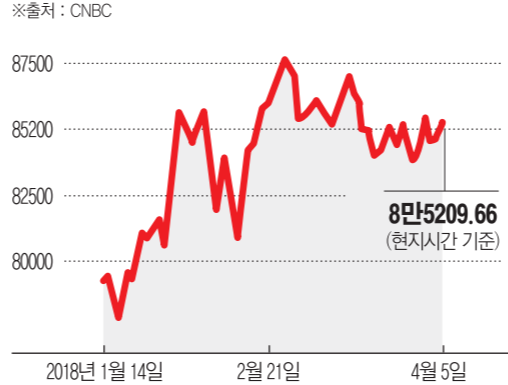
'경제개혁' 중도파 집권 기대에 5일 브라질 ETF 장중 2.4% 급등

문제는 좌우 정치적 대립 확대 지지자 농성 등 소요 심화 우려

석 이코노미스트는 "룰라가 대선 경쟁에서 사라지면서 경제 개혁을 주도하는 중도파 후보가 10월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브라질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룰라 전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 선거 열기가 식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룰라 전 대통령이 속한 좌파 노

브라질 상파울루증권지수 보베스파지수 추이



동자당(PT)의 지지자들과 룰라 반대파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돼 소요 사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체포 명령이 전해지자 상파울루 시내에서는 불꽃놀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PT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상파울루 외곽의 급속노동자 노조 건물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FT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룰라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

가상화폐 거래 금지한 인도중앙은행, 자체 코인 발행 시사

금융사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막아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철폐를 내렸다. 앞으로는 인도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이 더는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처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RBI는 "관련된 위험을 고려할 때 RBI가 규제하는 단체는 가상화폐를 다루거나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BP 카논고 RBI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대응은 일정하지 않지만 금융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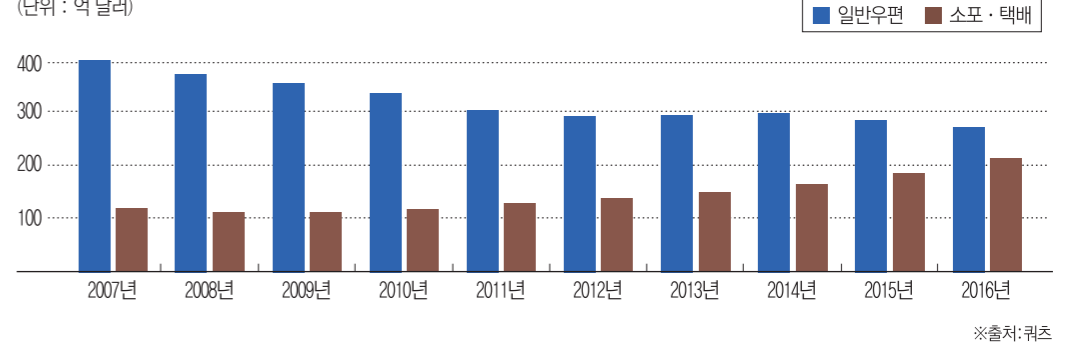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느낀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재정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당국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2월 "정부는 불법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지불 시스템의 일부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쓰빅 비슈와나 우노코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RBI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인도인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슈밤 아다브 코인텔타 공동창업자는 "이번 규제도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출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NBC는 RBI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서도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에는 개방적이라고 전했다. 카논고 부총재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RBI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다브는 "가상화폐가 금융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슈와나은 "정부가 자체 가상화폐를 시작한다면 기존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

미국 우정국 우편 유형별 매출 추이



"아마존이 美 우정국 손해 유발" 트럼프 주장 팩트 체크해보니

택배 대행으로 일반우편 손실 메꿔 아마존 없었으면 재정 악화 더 심각 트럼프 "택배 1개당 1.5달러 피해" 실은 법적으로 손해 안 보도록 강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아마존이 우정국(USPS)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과의 거래는 오히려 USPS에 이익이 된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아마존은 미국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USPS를 배달원으로 이용하는 아마존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우정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된 아마존 때리기에 최근 아마존의 주가는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아마존과의 거래는 USPS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디지털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엽서나 편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면서 USPS의 우편물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발송된 총 우편물 수는 1490억 개로, 10년 전의 2120억 개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아마존의 주문을 포함한 택배 운송 사업은 장래가 밝다. 2008년 33억 건에서 지난해 57억 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USPS는 몇 해 전 아마존 택배의 일일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다.

USPS는 지난해 손실을 보았으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없었다면 재정이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USPS는 지난해 9월 끝난 2017회계연도에 696억 달러(약 73조75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손실은 27억 달러였다. 엄청난 규모의 퇴직 급여 채무도 지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없었다면 USPS의 재정은 더 절망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폴린 세바스찬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대형 고객이 되기 훨씬 전에 USPS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본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아마존으로 인해 USPS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법에 따르면 USPS는 기업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얻도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독립기관인 우편규제위원회는 USPS의 요금을 감독한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 고객은 우편 네트워크 사용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마존의 운송 요금이 일반인이 물건을 보낼 때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량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할인에 불과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USPS가 아마존 택배를 배송할 때마다 1.47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된 씨티그룹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을 본 것 같다면서 이 보고서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를 인용한 WSJ 칼럼이 페덱스 투자자가 썼다는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아마존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혜 기자 winj@

코골이 멈춤 '끝판왕' 나왔다



테크 인사이트 이 매그니플렉스 스마트 침대 드르렁 소리 나면 상체 들어줘 2100만원대 가격에 판매 저조 경쟁사는 머리 기울기만 조절



코골이로 깨진 침실의 평화를 되찾아 주겠다는 매트리스 제조 업체가 등장해 화제다.

세계 최고 명품 매트리스 제조 업체인 이탈리아의 매그니플렉스가 코골이를 멈추게 하는 스마트 침대를 출시했다고 최근 포춘이 보도했다. '매그니 스타테크'라는 이름의 이 침대는 코 고는 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해 스스로 각도를 조절한다는 게 특징이다. 침대에는 작은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 코 고는 소리를 모니터링한다. 마이크가 코골이 소음을 인식하면 침대 각도를 쭈뼛 상체를 들게 만든다. 퀸이나 킹 사이즈의 경우 소음이 인식된 쪽만 각도가 조절된다.

퀸 사이즈 기준으로 가격은 2만 달러(약 2118만 원)다. 작년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됐고, 올해 2분기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판매된다. 만만치 않은 가격 탓에 판매량은 지금까지 상당히 저조하다. 매그니플렉스의 마르코 매그니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유럽에서 25개밖에 팔지 못했다"며 "2분기부터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매출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반기 매출은 유럽에서 100~150대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춘은 매그니플렉스의 코골이 교정 침대 제품

이 해당 브랜드의 주류가 될 수는 없어도 스마트 침대 제품군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 침대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사이러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침대 시장은 2017~2022년 11% 성장할 전망이다. 친환경 매트리스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스마트 침대 내에서도 용도별로 세분화된 침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매그니플렉스가 '매그니 스타테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경쟁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미국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작년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슬립넘버다. 슬립넘버가 CES에서 선보인 '슬립넘버 360' 제품도 코골이 교정 기능이 있다. 코 고는 소리를 침대가 인식하면 머리 기울기를 7도가량 올려준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퀸 사이즈 기준 가격은 매그니플렉스의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1만5000달러다.

슬립넘버 매장에서 일하는 헤더 찰라 매니저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가 최신 제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얼리어답터들은 기꺼이 이 이상의 비용을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우리는 이 기능을 '결혼 유지 기능'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수면재단(NSF)에 따르면 3억2600만 미국인 중 최대 9000만 명이 코를 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공하는 친구처럼!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친구는 '산업용에어백조끼'를 만들고,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는 '반려견공놀이기계'를,
 미니홈피에 재능이 있던 친구는 '가구매칭앱'을,
 그림에 끼가 있던 친구는 '색칠놀이앱'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IBK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장하고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도록 IBK동반자금융이 함께 뛰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노브랜드 입점, 시장 살릴 마지막 기회”

오광수 경동시장상인회장

“다양한 의견을 가진 상인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이 경동시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다.”

서울 경동시장에 5일 오픈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서 만난 오광수 경동시장상인회 회장의 목소리에서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설렘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경동시장에서 13년 동안 상인회 회장을 맡아왔다”는 오 회장은 “그동안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발전시킨 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새 갑자기 경동시장이 쇠퇴했다. 연세 많은 손님들이 주를 이루면서 시장이 노령화됐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겠다 싶었다”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먼저 오픈한) 당진어시장, 안성시장의 노브랜드 개입식도 직접 가봤고 영업을 지켜봤다. 역시 노브랜드, 괜찮겠다 싶어 입

13년 회장 하면서 발전 못시켜

시장 갑자기 쇠퇴, 노령화돼

젊은 사람 올수 있게 입점 추진

먼저 오픈한 당진·안성 등 활기

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첫번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인 경동시장점은 이처럼 시장 죽어 먼저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오 회장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사 집객력을 노리는 ‘키 데넨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말했다. 기존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실제로 집객 효과를 내고 있다. 2016년 8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오픈한 당진어시장의 경우 공용 주차장 월평균 이용 고객 수가 2015년 2153대에서 2016년 3247대, 2017년 5019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브랜드와 전통시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답



시장 상생스토어 오픈

오광수 경동시장상인회 회장이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경동시장점 오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한 고객 비중이 2017년 4월 62% 수준에서 같은해 12월 75%까지 높아졌다.

경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위치

한 신관 건물은 노후해 계단만을 이용해 장본 짐을 운반해야 하다 보니 고령층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 회장은 이 점을 감안해 “에스컬레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고려했다가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마련하지 못했다”며 “방문객 변화 추이를 보고 편의시설을 좀 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와 함께 노령화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번에 경동시장에 새로 마련된 어린이희망놀이터나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인 ‘카페숲’,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등이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경동시장점은 당초 지난해 12월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4개월가량 지연됐다. 오 회장은 “진행 과정에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등 협의를 거치면서 지연되는 것들이 있었으며” “꾸준한 협의를 통해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게 됐고 상인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제62회 신문의 날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종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신문, 민주사회 지탱하는 공공재”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 이낙연 총리 등 200여 명 참석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하연은 회원사 발행인,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사 시상, 신문협회 이병규 회장 환영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문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

인 공공재로, 신문의 공익성은 어느 매체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며 “신문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언론도 바로 서고 우리 사회도 더욱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제62회 신문의 날을 계기로 신문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신문은 앞으로 더 변함없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문협회는 축하연에 앞서 신문의 날 기념대회, 신문협회상·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재영 기자 ijr0403@

경총 부회장에 송영중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6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송영중(62·사진) 한국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경총 회장단은 “저성장 저고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력수급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문제에 경륜과 식견이 높으며 고용과 복지 문제에도 밝은 송 석좌교수가 상임부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에너지공단,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 MOU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박차... 지역 사회와 공존 가능 우수모델 발굴·전파”

한국에너지공단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에너지공단은 5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하나네체투자자산운용, 레즐러, 행복산촌트윅마을과 ‘주민참여형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철원군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지원 △한국동서발전은 스마트 그린빌리지 실증단지 조성 협력 △행복산촌트윅마을과 레즐러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하나네체투자자산운용은 주민참여형 금융상품 개발·운용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 사회와 공존 가능한 발전사업 우수모델을 발굴·전파할 것을 약속했다.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약 37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설비 15MW를 설치하고, 2019년 말까지 65MW, 2020년 이후 총



100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이 사업은 철원군 지역 주민들이 자본투자, 채권펀드 등을 통해 20% (6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국민연금처럼 태양광 수익금이 20년간 지급된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 관리, 전기차 등을 적용해 스마트 그린빌리지

실증단지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 수익을 공유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수 사례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하니,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에



한국문화재단은 5일 국악을 전공하고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하니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하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다. 연합뉴스

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임형식 △기획협력실장 구분성 △국제금융연구실장 박해식 △은행·보험연구실장 이대기 △금융인력네트워크연구센터장 박재하 △보험·연구센터장 김병덕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서정호 △금융소비자연구센터장 이순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부사장) △파트너 및 SMC사업본부 우미영(상무) △컨슈머 및 디바이스사업본부 임용웅(이) △기술지원본부 김학우(이사) △파트너 및 SMC사업본부 이종희(서비스사업본부 정재현)

◆신영자산운용(상무 승진) △자산운용부부장 김대환(이사 승진) △마라톤가치본부 원주영 △배달가치본부 박인희(부장 승진) △컴플라이언스팀 이경화

◆KG제로인(신규 선임) △상무이사 한수혁

◆IMBC △대표이사 김원태 △이사 한기현

◆뉴스1(승진) △전국부국장대우 김성환 △디지털뉴스룸 부국장대우 서영도 △경제부 부장직대 최경환(전보) △뉴미디어랩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허남영 △사회부장 진성훈 △국제부장 김윤경 △스포츠부장 겸 문화부장 김삼우

“전력·자동화 분야 인재 육성할 것”

LS산전·연암공대 산학협력 협약

LS산전은 5일 경기도 안양 소재 LS타워에서 구자균 LS산전 회장과 이웅범 연암공대 총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암공대대학교-LS산전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전력·자동화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육성 커리큘럼을 발굴하고 실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스마트 에너지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연암공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LS산전은 이를 위해 견학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산학공동연구 과제, 각종 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부음

▲권옥주씨 별세, 임종철(사업)·현철(한국표준협회 전무)·용철(부자극수 대표) 모친상, 정관순(기창축복사 대표)·김규광(영동대 교수) 장모상=5일, 서울

금연운동 선구자 박재갑씨 ‘세계 보건의 날’ 국민훈장



이웅범 연암공대대학교 총장(왼쪽)과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산학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산전

이날 구자균 회장과 이웅범 총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모델의 변화, 이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균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인 박 이사장은 암센터를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 것은 물론, 금연 운동의 선구자로서 미디어 출연면담 금지, 군 면세담배 폐지, 담뱃값 인상, 금연시설 지정 등 국가금연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박 이사장을 포함해 보건의료 산업화에 기여한 송시영(60) 연세대 의대 교수, 정신장 애인의 인권·권익 향상에 기여한 제철웅(57)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39명을 포상한다. 박은평 기자 pepe@

성모병원, 발인 7일, 02-2258-5940 ▲김택진씨 별세, 영창(순천향병원 의사)·영호(동아유미미술전무)·영아·영주씨 부친상, 김진순(코스모스약기 임원)·성경원(일진그룹 그룹운영실장) 장인상=5일, 서울순천향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30분, 02-797-4444 ▲홍진우(문학회원 이사장)씨 별세, 영택(홍영택상부인과 원장) 부친상, 노희라씨 시부상, 주연(경상대 교수)·주희(연세대 연구교수)·주미씨 조부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02-2227-7591

애경산업 ‘디딤씨앗통장’에 6억 기부

저소득 가구 아동 성장 지원

애경산업이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대 1 정부매칭 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으로 적립해준다.

애경산업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후원금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5

년간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당 매월 5만 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예정이다. 해당 아동의 통장에는 애경산업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매월 후원한 5만 원과 국가 지원금 4만 원 총 9만 원이 저금돼 5년 뒤에 540만 원이 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200명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시설 등 20개 기관에서 10여 명씩 선정될 예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

오투기재단, 장학생 34명 2년간 학비 전액 후원

재단법인 오투기재단은 4일 ‘제22회 오투기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함영준 오투기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신규 장학생 3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생들은 오투기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오투기장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1996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오투기 재단은 지금까지 830여 명에게 약 55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오투기 재단은 지난 25년간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통해 4564명의 생명을 살리는 등 다양한 CSR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학교와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재단의 ‘굿윌스토어’에 오투기가 생산하는 주요 선물세트 조립 작업 임가공을 위탁해 장애인들의 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밖에도



함영준 오투기재단 이사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오투기

야구 관람, 연주회 개최 등 문화 행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투기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가져 소비자에게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

고위직 절반이 여성... 경험·고민 나누며 차별 없이 무한성장

W기획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③4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1982년 창립한 국내 대표 의류수출기업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자개발생산(ODM)을 전문으로 나이키와 겹, 아메리칸이글 등 세계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윌마트와 타겟 등 세계적인 대형할인 매장의 자체상표(PB)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표 SPA(제조-유통 일괄화) 브랜드인 H&M과 자라(ZARA)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억4900만 장, 약 13억 달러어치의 의류를 생산·수출했다.

현재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아이티 등 6개국에 12개 해외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본사에 730여 명, 뉴욕 및 해외 생산기지에 3만6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세실업의 서울본사 여성인력비율은 61%에 달하며 여성 중간관리자는 47%에 육박한다. 임원도 절반은 여성이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남성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고 여성 직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승진은 물론 차별과 편견 없는 사내 문화를 정착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세실업 본사는 인접한 4개 빌딩에서 각 본부가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건물 2층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다. 2015년 개원한 이곳은 현재 35명의 아



한세실업 여성 조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본사 5층 직원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활한 업무와 직장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자리다. 한세실업은 여성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입사원 베트남 연수 및 우수사원 미주 연수, 외국어 교육 지원, 전자 도서관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본사 女인력 비율 61%... 건물내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 높아 여성 리더 프로그램으로 인재양성... 사내 설문조사 소통門 '활짝'

이들과 9명의 교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여성 직원들이 육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제도 중 하나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매일 오후 1~3시 사이 아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은 키즈노트를 작성해 핸드폰 전용 앱에 게시해 부모들과 아이들의 일과를 공유한다. 서진경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활동 내용과 식단,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사진과 동영상 만들어 매일 공

유하고 댓글로 소통한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또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해 정시퇴근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술자리 대신 공연이나 영화를 즐기는 문화회식 등으로 남성 중심의 회식 문화를 벗어나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 인재를 키워 내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여성 리

더의 역량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경력관리 노하우와 솔직한 조언을 전하는 멘토링의 장으로 직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입사원 베트남 연수 및 우수사원 미주 연수, 외국어 교육 지원, 전자 도서관 등 여성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리 후생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문화와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직급별, 직급 간, 부서 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j@

인터뷰 이송희 한세실업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차·부장급에 女인력 대거 채용 조직문화·이윤창출 ‘새바람’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일하려면 회사와 가정생활의 경계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방향을 틀어 과감한 도전을 감행할 결단력과 용기도 필요하죠.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고민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송희 한세실업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여성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려면 한 가지 영역만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겪어야 하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삶의 변화 속에서 견뎌내면 자신을 지탱하고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힘인 회복탄력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언은 이 본부장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 본부장은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무역회사 pms에 입사해 16년간 영업본부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으며 영업전문가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마흔이 되던 2001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자원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한세실업으로 자리를 옮겨 17년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흔에 갑작스레 전공을 바꾸려니 적응이 쉽지 않았죠. 처음 1~2년간은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늘 가슴에 물음표를 달고 살았죠. 다시 내 전공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고민했죠. 아이 때문에 전공을 바꿨지만 그 덕에 33년간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이 본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을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곳곳하게 길을 걸어왔던 선배로서 후배들의 현재 어려움을 공유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독려도 아끼지 않는다.

한세실업도 여성 근로자가 늘고 중간관리자급 여성 인력이 외부에서 다수 영입되면서 사내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달라졌다. 섬유·의류 회사이지만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존재했으나 인력구조 변화가 조직문화 개선의 물꼬를 텄다.

“3~4년 전부터 차·부장급 여성 인력들을 대거 채용했어요. 의류산업은 섬세함과 꼼꼼함을 요구하는 산업인데 이런 업무 수행 능력은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남성 인력보다 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죠. 고객사인 미국과 유럽, 일본, 바이어들과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에서도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요. 여성 인력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본부장은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공장의 모든 직원이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회사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회사 안에서 아이 함께 키우니, 워킹맘 역량 쑥쑥”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직원만족도가 가장 높은 여성·가족친화 혹은 양성평등제도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내 어린이집제도이다. 회사 내에 있어 언제든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수시로 선생님들과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만족도가 높다.”
- 한세실업은 여성인력비율이 60%에 달하며, 여성 임원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여성 인력 발굴과 양성에 힘쓰는 이유는 “특별히 여성 인력을 우대해 채용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한세실업은 의류를 만들어 수출하는 패

션 기업인 만큼 여성 고유의 패션에 대한 감각과 감성이 우리가 만드는 옷에 반영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 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직문화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직원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예컨대 과거에는 학부모 상담, 부동산 처리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하루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반연차 제도를 도입해 오전, 오후 중 필요한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해 준비 중인 제도가 있다면 “3월부터 비즈니스 캐주얼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나 공식적인 장소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출퇴근 시에는 청바지나 운동화 등 편안한 차림으로, 패션회사답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 HR총괄 상무로서 목표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고 싶다. 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민정 기자 mj@

정재준 경영지원본부 HR총괄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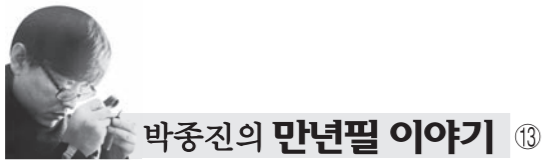


- 여성·가족친화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꼽는다면 “내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업무 몰입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향상된다. 한세실업은 역량이 우수한 여성 인력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을 통해 핵심 인재 잔존율(리텐션)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h·point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지금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박종진의 만년필 이야기 ⑬

아날로그의 멋과 맛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본가(本家) 근처에서 일을 마치면 어머니와 식사를 한다. 냉장고에서 뭘가가 나오고 "뚝 뚝 뚝" 같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들린다. 호박이나 감자가 썰리는 것이다. 냉이와 달래가 들어가는지 된장찌개의 향이 더 구수하고 향긋하다. 생선 한 토막이 구워지고 묵은 김치도 보기 좋게 접시에 담긴다. 금방 지은 밥과 따뜻한 국까지 상에 오르면 어머니 표 집밥이 완성된다.

이런 한 끼는 버튼 눌러 주문을 하고 순서를 기다려 혼자 먹는 햄버거와는 다른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다. 당연히 어머니 밥상이다. 중성지방과 나트륨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좋은 한 끼는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만들어질 때 나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도 있어야 한다.

치지직 치지직거리다 채널이 맞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DJ의 음성과 함께 고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라디오의 매력이다. 최근 몇 개월간 마음에 드는 라디오를 찾기 위해 고생했다. 세운상가 골목도 다녀보고 동묘 벼룩시장도 기웃거리려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요즘 라디오는 반질반질하지만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 제대로 만든 물건 같지 않았다.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 소리도 깊고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진공관은 아니더라도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는 옛날 라디오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라디오 중엔 온전한 것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소리가 나 온다 하더라도 어디 한 곳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귀통이 한쪽은 꼭 깨져 있었다.

그러길 한두 달 어렵사리 웬만한 것을 구할 수 있었다. 라디오를 구해 돌아오는 길에 동행한 젊은 친구가 내게 묻는다. "소장님, 차

안에 있는 라디오를 들으시면 되지 왜 이런 고생을 하세요?" 내가 대답하길 "제가 원하는 라디오 듣는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드는 라디오 찾고 수리하는 등 그 모든 수고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년필로 글을 쓰려면 첫 번째, 좋은 종이를 찾아야 한다. 번짐이 덜하고 뒷면 배김이 없어야 한다. 표면이 거친 것보다는 매끈한 것이 좋는데 너무 매끈하면 건너뛰는 획이 생기고 잉크가 잘 마르지 않는다.

쓸 만한 종이를 찾았으면 다음은 내게 맞는 잉크를 구할 차례이다. 만년필 회사들은 보통 자기네 회사의 잉크를 추천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같은 회사라도 더러워 만년필 회사에서 나오는 잉크를 넣으면 된다. 예를 들면 파커 만년필에 몽블랑 잉크를 넣어도 된다. 다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문서보존용 잉크는 내수성(耐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세척을 좀 더 자주 해주면 된다.

잉크도 번짐이 많은 것이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으려면 수고와 경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좋은 종이를 찾고 자기에게 맞는 잉크를 구할 수 있어 만년필 글쓰기가 재미있는 것이다.

아날로그, 자주 쓰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사전에 있는 대로 '물질이나 시스템 등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아날로그를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다. 그것 자체만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모두가 포함된 것이라고. 뷔페의 음식이 풍성한 것 같지만 덜 맛 있고 키보드로 치는 글쓰기가 재미없는 것은 바로 그것만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년필연구소장

여천국의 세계경제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靑·長年 일자리, 제로섬 게임?

도 시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비슷한 발상이다.

일자리 총량설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학교 교직원처럼 청년과 장년 근로자의 대체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취학 연령 학생이 줄어들며 늘어날 일 없는 교사 자리는 그야말로 퇴직 교사와 신규 임용이 대체 관계인 제로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일자리 상황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도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경쟁이 흔치 않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과 한국 경제학자들의 결론이다. 조기퇴직 제도를 시행했던 영국에서 전체 취업자와 그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졌는데, 18~24세와 50세 이상의 실업률은 상반이 아니라 동반 추세를 보였다. 단기간에도 동반 양상이 더 뚜렷했다. 북미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확실하게 청년과 장년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임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도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다. 청년과 장년이 실제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보면 두 집단 간 경험 관계의 여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직종별 구직자 자료를 보면 29세 이하의 구직자들은 약 33%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비해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이 몰린 곳은 경비, 청소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 업종이었다. 50대 구직자의 9.3%가 20대 구직자 선호 직종에서 구직해 약간의 중첩이 있었다. 직종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 일자리는 임금 수준, 계약기간, 고용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장년층이 훨씬 열악하다.

한마디로 장년층 근로자들이 청년층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장년층 때문

에 청년층이 관련 직종을 더 기피하게 된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장년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공적, 사적 노후 대비가 모자란 장년층 근로자들의 눈높이는 바닥 수준인 탓이다. 장년층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이나 의료보험 등 코앞 노후 대비에 대한 지원이 모자란 것이 큰 문제이다.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험은 청년, 장년 구별 없이 일자리 총량은 경제 사정이 개선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애먼 실험을 그치고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으로 청년 공무원 늘리기뿐만 아니라 장년층 저임금 취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보조 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자력으로 애쓰는 장년 근로자들을 도와야 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한 컷



벚꽃만 즐기다 가세요

주말 벚꽃축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운중로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상춘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여쁜 벚꽃을 담아가느라 본인이 들고 온 것들을 잠시 잊었나? 다른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만 보고 돌아갈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이러 기자 photoeran@

온라인 모자모

보라카이 섬 6개월간 폐쇄... "두테르테의 빅 픽처!"

대표 휴양지 필리핀 보라카이 섬이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된다.

5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보라카이 섬 폐쇄'를 결정했다고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올 2월 보라카이 섬을 시공장에 빔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열악한 하수 시설 등을 지적하며 보라카이 섬 환경 정화를 위해 섬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 시설물 다수가 하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상태이며, 습지 9곳 중 5곳은 불법 건축물로 파괴됐다.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 섬에 있는 환경 유해 시설 100곳에 철거 경고를 내렸다. 또 보라카이 섬 환경오염과 관련해 지방 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아이디 'ae48****'은 "관광 의존도 높은 지역이 환경을 위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다니", 'seun****'은 "지금 당장



은 관광을 안 해서 힘들더라도 보라카이 섬이 더 시공장 되면 관광객이 아예 끊겨 평생 굶어 죽는다. 두테르테의 빅 픽처', 's2_k****'은 "당장 아쉬워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라며 두테르테의 결정을 치켜세웠다.

아이디 'jij****'은 "자연보호도 좋지만, 보라카이 인구 다수가 관광업 종사자일 텐데 6개월 동안 어쩌나"라며 걱정했다. 그 밖에도 'miso****'은 "어지간한 동네만 한 곳에 200만 명이나 다녀갔다니", '진여****'은 "열린 섬이 잘 정리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으면"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진희 기자 jh6945@

“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옛보기 방지기능**
비밀번호 앞/뒤에 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촉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촉하는 기능
- 저전압 알림기능**
전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 지문인식**
- 터치패드**
- 내화성능**

CE (유럽연합) 정품 인증 시스템
RAB (유럽연합) 6세 유해물질 사용제한 준수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소핑몰 www.hd2.co.kr,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공무원연금제휴쇼핑몰, 씨제이올, 신세계올, 1300K, NH마켓, nsmall, 이마트, SSG, 하이마트,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티몬, 위메프, 예누리닷컴, 다나와

이슈 & 인물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課稅...집 팔아 稅金 내란 얘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부담금’ 명목...사실상 ‘세금’ 조세법률주의 위배되는 것 부동산 가치 상승에 과세 양도세와 二重課稅 위험 소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국민 기본권과 관련 깊은데 행정기관 시행령만으로... 포괄위임 금지 原則에 위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월 부활했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2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다음 달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통보받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1월 서울의 모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인의 이익을 국가가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10개 조합·1개 추진위 공동 위헌소송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준비한 계기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부담

금 부활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심을 두게 됐다. 당시 몇몇 강남 재건축 조합장과 얘기를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라도 헌법소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동료 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

분위가 반전된 것은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다시 시행된 올해부터다. 특히 국토부가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을 낼 수도 있다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발표하자 여러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언했다.

처음에는 강남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애초 20여 개의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가 합께하기로 했으나, 조합원들 간 합의 등 절차상 문제로 10개 조합과 1개 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위헌소송을 냈다.”

공시가격·실거래가 부과기준 엇갈려

-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무엇인가 “세 가치를 들 수 있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이다. 재건축부담금은 흔히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받아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이처럼 실질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현재도 실질 조세를 명목상 달리 규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미실현 이득이 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이다. 현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공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 부과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불확실하다. 더불어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반영해 불합리하다. 게다가 종로 시점의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미실현 이득 과세는 1가구 1주택이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현실 담세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다.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이중 과세는 위헌성이 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과세는 위헌성이 있다.”

2008년 한 차례 각하...정치적 결정의 의심

- 위헌소송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재건축과정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즉시 시나 구로부터 재건축부담금 납부대상 지역으로 고지받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통보받은 예정액을 조합원 각자의 부담금으로 산출해 통지한다. 이처럼 현행 법률상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조합들은 법에 따라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재량이 전혀 없이 법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이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 국토부 장관의 처분 행위 이전에 법률에 대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존 현재의 입장에 부합한다. 현재는 2008년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번에도 현재가 정치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청구마저 각하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코 각하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에 이미 포함

-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재건축부담금과의 연

초과이익 과세 어떻게

분양 전후 두 차례 감정 평가 차익 3000만원 초과분 대상

재건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처음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준으로 관할청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 1군데와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1군데의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가격을 재건축의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이후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분양가격에서 기준금액을 빼고 조합원이 내는 부담금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조합원들의 이익이 된다. 이익 중 기본적으로 1가구당 3000만 원씩을 공제를 해 준다. 그래도 남은 이익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부른다.

관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과 무관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나 외국의 판례들이 밝히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법률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토지공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헌법에 ‘특별히 제한’이란 등의 표현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 최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가 있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내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안전진단기준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의 절차를 따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대략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호진 기자 js62@

재건축 개발 전문 법무법인... “강남부자 代辯? 모든 사람에 혜택”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45) 대표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헌법소송 등 법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시 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법 자문변호사, 보건복지부 등 행정입법과정 자문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재건축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인본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강남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비난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위헌소송은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짓밟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객관소송인 만큼 청구인(특정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Table with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News, Business, and Law.

Advertisement for Munu.co.kr featuring books by Lee Jun-gu. Includes titles like '행태경제이론' (Behavioral Economics Theory), '싱가포르 다시 보기' (Singapore Revisited), and '열린경제학' (Open Economics). Each book entry includes a description, author, and price.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백악과 청학이 살아 청학동으로 불렸다는 용추협곡의 아찔한 풍경.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대자연이 빛은 예술에 흘린다

4월에 가볼 만한 국내 지질공원 6곳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봄나들이 가기 안성맞춤인 계절이 돌아왔다. 색다른 봄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흔적을 찾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가능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지질공원은 땅의 역사를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선사한다. 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는 교육·관광자원으로 개발돼 박물관과 유적지를 탐사하며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한국관광공사가 4월 가볼 만한 여행지로 추천한 국내 대표 지질공원 6곳을 소개한다.

1 화산 돌맹이를 찾아서... 한탄강 지질공원 = 한탄강 지질공원 여행은 한탄강, 임진강, 차탄천 등에 흩어진 지질 명소를 둘러보며 화산이 남긴 유구한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여행이다. 연천군과 포천시에 속한 관련 명소가 20군데에 이른다. 연천군에는 당포성과 임진강 주상절리, 전곡리토층전시관 등이 대표적이다. 고구려 때 현무암으로 쌓아 올

린 당포성 위에 오르면 임진강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인근 임진강 주상절리 조망지에 가면 높이 25m, 길이 2km에 이르는 주상절리 절벽을 볼 수 있다. 이 절벽은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 일부가 임진강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형성됐다. 포천에서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 화적연, 명우리 협곡, 비룡기암폭포 등 지질 명소가 있다.



한탄강지질공원 대교천 현무암협곡.

2 바다와 바람이 만든 해안사구... 태안해안국립공원 = 서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다양한 지질 환경을 갖춰 자연 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곳의 가장 큰 지질학적 특징은 해안사구다. 해안의 모래가 바람에 밀려 조금씩 육지 쪽으로 이동하며 생긴 해안사구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경관과

특색 있는 식물 덕분에 생태적 중요성이 크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크고 작은 해안사구 23개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태안해변길 5코스 '노을길(삼봉해변-기지포해변 구간)'이다. 이곳엔 갯완두, 갯쇠보리, 갯그렁 같은 식물과 멸종 위기종 표범장지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신두리해안사구.

3 타임머신 타고 중생대로... 해남 우항리 공룡 화석지 = 공룡에 한창 관심 많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가끔 공룡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공룡은 온열동물일까 냉혈 동물일까' '빠른 남은 공룡 화석에서 암수를 구별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해답을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 산지(천연기념물 394호)에 가면 찾을 수 있다. 해남읍에

서 20km 떨어진 이곳은 세계 최초로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돼 주목받았다. 호수를 따라 걸으며 공룡 발자국 화석을 만나고 해남공룡박물관에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생생한 야외 공룡 조형물을 구경할 수 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해남 대흥사(사적 508호), 달마산이 병풍처럼 감싼 미항사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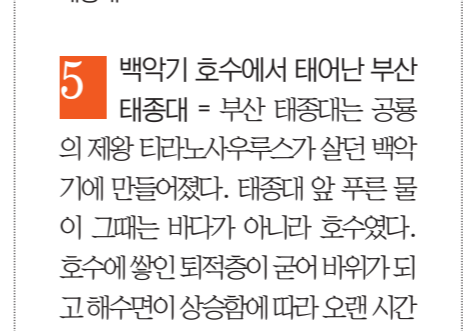


해남 공룡박물관.

4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경북 청송은 천혜의 자연 속에 원시의 비경이 있는 주왕산과 주산지, 신성계곡 등으로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땅이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청송은 지질 관광의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주왕산국립공원의 기암 단애와 용추협곡, 아이들이 열광하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과 만나는 신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백석단 등 지질 명소 24곳이 자리해 있다. 신비하고 역동적인 지질 탐험을 마치면 청송군 수석꽃박물관에서 꽃들의 향기를 감상하고, 객주문화관에서 문학의 감성에 빠져 보는 것도 좋겠다.

5 백악기 호수에서 태어난 부산 태종대 = 부산 태종대는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가 살던 백악기에 만들어졌다. 태종대 앞 푸른 물이 그때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다. 호수에 쌓인 퇴적층이 굳어바위가 되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오랜 시간 물과 바람에 씻기고 깎여 지금의 태종대가 탄생했다. 그 오묘한 모습에 반해 신라 태종무열왕이 머물며 활을 쏘았다고 하여 '태종대'라는 지명이 생겼다. 지질 탐방지는 영도릉대 앞 태종바위와 신산바위 주변에 집중된다. 파식대지, 해식 절벽, 해식동굴 등 다양한 지질 환경을 볼 수 있다.

6 화학의 교과서 제주...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학의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세계적 지질 자원의 보고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2년 국가지질공원에 선정됐다.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은 태초의 제주와 조우하는 탐방로다. 용머리해안을 중심으로 산방산과 산방굴사를 둘러보는 A코스, 사계포구를 거쳐 마을 안길을 걷는 B코스, 산방연대에서 황우치해변을 따라가는 C코스나뉜다. 송악산은 해안 절벽 위로 돌레길이 조성된 또 다른 지질 명소이며, 산방산탄산온천은 온종일 걸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좋다. 김민정 기자 mj@



태종대.



기암절벽 위에 지은 방호정.



용머리해안.

상품의 속살

딸기와 바나나의 환상조합... 입에서 '사르르'

미니스톱의 '딸기 바나나 소프트크림 아이스크림'이 봄철 인기 디저트로 떠올랐다. 출시 후 1주일 만에 소프트크림 전체 매출이 1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중 딸기 바나나 소프트크림의 매출 증가는 기존 벨기에초코 소프트크림 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니스톱은 매년 봄이면 봄철에 어울리는 신메뉴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봄에 어울리는 메뉴로 봄철 대표 상품인 딸기를 소재로 한 딸기 소프트크림 제품을 주로 출시했으며, 간혹 체리 소재 제품도 선보인 바 있다.

미니스톱 상품본부 FF부 월드컵지트 커피팀은 매년 겨울이면 출시하던 벨기에초코 소프트크림보다 고객의 지지를 받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숙제였다. 매년 봄철 신메뉴로 교체할 때마다 겨울 한정 출시품인 벨기에초코 소프트크림 판매를 지속해 달라는 고객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미니스톱은 고민 끝에 음료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봄 시즌 상품들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던 중 '딸기와 바나나'를 소재로 한 제품이 음료 시장에서 새롭게 인기 소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생과일 전문 브랜드에서는 매출 구성비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소재라는 점을 포착했다. 월드컵지트 커피팀 이상희 팀장은 "음료시장에서

미니스톱 소프트크림 '딸기 바나나' 시향작업 끝에 최적의 맛 밸런스 찾아 출시 1주일 만에 전체 매출 140% ↑



는 인기 소재였으나 의외로 아이스크림이나 소프트크림 시장에서는 활용된 사례가 상당히 적어 그 점에 착안해 봄철 소프트크림 신메뉴를 출시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부침도 있었다. 커피팀 박상환 매니저는 "먼저 딸기 바나나 음료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생산해 봤는데, 최초 샘플은 바나나 맛이 너무 진해 매우 느끼한 맛이 올라왔다. 그래서 두 번째 제품부터는 딸기 함량을 늘려가며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더니 바나나 맛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딸기와 바나나를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딸기 맛과 바나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박 매니저는 "이 두 가지 맛을 소프트크림으로 구현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결국 몇 달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한 결과 딸기 맛과 바나나 맛을 동시에 갖도록 밸런스를 맞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이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 예보에 대응해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 줄 수 있는 여름철 신메뉴로 다시 고객에게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날씨와 생활

봄·여름철 기능성 웨어 '붓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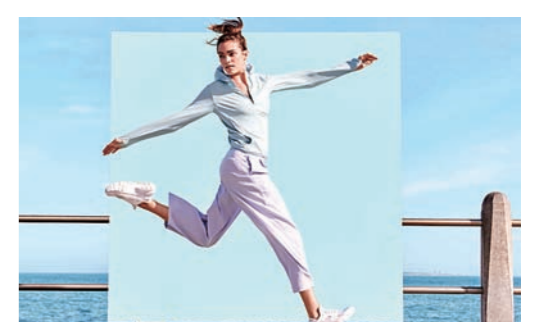
속옷부터 일상복까지 '흡습속건'이 대세

쿨맥스·아쿠아템프·드라이-EX 등 적용 일반 면보다 통기성 높여 쾌적함 유지

올해 4월은 '여름 같은 봄'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여름에 걸고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올봄·여름철을 대비해 흡습속건(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함을 의미)의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일찌감치 선보이고 있다. 고기능성 원단들이 아웃도어나 스포츠 웨어뿐 아니라 교복, 속옷,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교복 브랜드 엘리트는 교복 업계 최초로 쿨맥스 원단을 적용한 '쿨맥스 셔츠'를 선보였다. 교복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생활복에만 도입해 왔던 쿨맥스 원단을 셔츠와 블라우스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인비스타 쿨맥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흡습속건 기능의 대표 소재로 4채널 섬유 구조가 피부에서 나온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해 최적의 체온을 유지해 준다. 실제로 쿨맥스는 일반 면사에 비해 땀을 증발시키는 속도가 약 14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뛰어난 통기성으로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한 10대 학생들에게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평가된다. 쿨맥스 소재는 청바지에도 적용된다. 의류 브랜드



유티클로 액티브웨어 '에어리즘'.

드 버커루는 매우 양세종을 모델로 하는 SS시즌 신제품 '양세종 데님'을 선보였다.

수입 언더웨어 브랜드 플레이텍스는 아쿠아템프 소재를 적용한 '퍼펙트 실루엣 누드 슈트'를 선보였다. 퍼펙트 실루엣 누드 슈트는 올인원 스타일의 가볍고 시원한 보정 속옷으로 땀 흡수에 초점을 맞췄다. 신축성이 좋은 '라이크라'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아쿠아템프'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착용감을 모두 고려했다.

유니클로에서는 이번 시즌 액티브한 일상을 위한 기능성 웨어를 한층 강화했다. '드라이-EX', '에어리즘', '블랙테크' 등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해 온 유니클로는 아우터뿐 아니라 언더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기능성 웨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다른 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백 있는 노년을 위해”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인터뷰를 할 때면 딱 첫 번째 질문만 준비해 간다. 김 교수는 “첫 질문 이후 이야기의 꼬리를 물어가는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이뤄지는 과정이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동저자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거리의 인문학자라 불리는 김찬호(金贊鎬·57)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그는 인간의 영혼이란 매우 여리고 취약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든 작은 말 한마디와 눈빛만으로도 타인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감수성은 인간의 언어를 ‘경청’하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덧붙인다. 그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서해문집)를 통해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베이비붐 세대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희망의 노년 길 찾기’라는 부제의 도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동 저자인 김찬호 교수와 문학평론가 고영직, 여성 학자 조주은은 각자 베이비붐세대 한 사람씩 인터뷰하며 그들의 생애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반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 늦깎이 시인이 된 최영식 씨, 전업 주부로 살며 포기했던 꿈에 다시 도전하는 김춘화 씨, 이우학교를 만들고 현재는 ‘50+인생학교’ 학장이 된 정광필 씨.

그중에서 김 교수가 만난 이는 정광필 학장이다. 일전에도 대안 교육과 관련한 공식 모임 등에 참석하며 얼굴을 익힌 두 사람이다. 혹시 김 교수가 직접 인터뷰이로 정광필 학장을 꼽은 것이 아닌지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야말로 우연히 출판사를 통해 기회가 닿았다”고 말했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봤지만 단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덕분에 인터뷰 진행에 더 의욕이 생겼다는 김 교수다.

“아는 사이지만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어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끔씩 정광필 학장을 보면서 저런 분이려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했거든요. 책 때문이 아니라라도 언젠가는 꼭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어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인터뷰하며 들어 보니 정 학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용기 있는 실천을 해 왔더군요. 분명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정 학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슬럼프 같은 게 없더라고요. 모든 문제 상황을 게임 감각으로 경쾌하게 풀어나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인생 선배에게 배운다는 게 이거구나, 말보다는 어떤 기운으로 그가 살아 온 인생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는 10시간 가까이 정 학장을 인터뷰했지만, 한 가지 묻지

‘자신의 삶’ 누리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돈·지위·명에 쫓겼지만 내적으로 공허 정서적 관계 통해 마음의 그릇 빚어야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르거나 나이 외적으로는 뭔가 생겼겠소. 돈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데 말입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음미해 볼 것을 권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퇴 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 삶의 여백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백과 공백은 다르죠. 디자인도 잘못된 걸 보면 여백이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비었다고 무조건 여백은 아닙니다. 노후에 할 일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엔 공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 공허한 거고요. 빈 시간이 여백이 되려면, 그만큼 자기 마음에 그릇이 생겨야 해요.”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만드느냐고 묻자, 김 교수는 “자기 언어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가 강조하는 ‘자기 언어’는 무엇일까?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울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호소, 그때의 언어는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 존재가 다가오는 거지. 이때 느끼는 자기 언어의 생명력은 대단한 학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험하고, 감동할 수 있죠. 자기 언어는 내면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깥에서 지식으로 언어를 흡수하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가 도구화되어 버렸죠.”

그는 특히 중장년 세대가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명령의 언어, 힘겨루기의 언어, 과시의 언어 등에 익숙해져 버린 것. 이에 대한 해답 역시 ‘경청’이라 제안한다.

“우리는 늘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죠. 그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견제거든요. 서로 위협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서적 신뢰를 쌓는 안전한 관계가 필요한 거죠.”

◇경청을 통한 발견, 그리고 변화 = ‘경청’이 중요한 것은 알

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마음먹고 실천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한발짝만 더 나아가면 자기 언어를 익히고 경청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잖아요. 보편적인 소재를 하나 찾으면 좋아요. 그리고 5분씩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가끔 평생학습센터 같은 곳에서 수업 시간에 해 보거든요. 확실히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이에요. 평범한 것 속에서 비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인생의 굴곡을 지나 최근에 이르러 그에게 달라진 것은 또 한 가지. 시기어린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것. 대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채워 가고 있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어느 정도 유명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하는 사람, 인지도 높은 사람, 책 많이 팔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명예라는 게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죠. 예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강사료에도 의미를 부여했어. 지금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요.”

◇내 남은 생애가 쓰이길 바라며 = 젊은이와 대화하는 중장년을 보면 차분히 마음먹고 잘 듣다가도 어느새 잔소리를 늘어놓곤 할 때가 있다. 이에 김 교수는 ‘감수성’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가 잘해 주고 싶은 것보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헤아려야

내 삶에 대한 ‘에고’ 대신 타인에 ‘경청’ 상대에 대한 이해, 나에게 대한 이해와 같아 나이 들어 좋은 점? 고민할 게 준다는 것

죠. 그게 감수성이고, 센스인데, 의지만으로 생기지 않는 것들이예요. 먼저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해요. 관찰, 통찰, 성찰은 함께 이뤄져요. 상대에 대한 이해는 나에게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남에게 친절할 사람은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늘 화내는 사람은 자신과도 불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잘 지내기가 곧 남과도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것. 그렇다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꼭 자기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들고자 할 때 자연히 나의 삶과 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깡대질이라는 걸 왜 하게 될까요? 에고(ego)에 갇혀 있을 때 문이예요. 에고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넘어선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공적 영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역사적 의미 등이죠. 내 남은 생이 인생 후배들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러면 깡대질을 덜 하게 되죠. 꼭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생의 능력이 쓰여 누군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 내가 대접받고 아니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져요.”

책 말미에서 정 학장은 “나이 들어 더 좋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세월이 갈수록 이해가 많이 된다. 스스로 내려놓으면 오히려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포기할 게 많아진다는 것?(웃음)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이미 많은 게 굳어진 상태니까요. 좋은 의미의 체념이랄까? 고민할 게 줄어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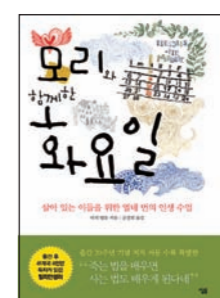
글/이재혜 기자 jyelee@
사진/오병동 작가 obdlife@gmail.com

지난 삶을 음미할 때 도움이 되는 도서

by 김찬호 교수



나이 들 수 있는 법
고미숙·정희진·김태형 외 3명 공저 / 서해문집/1만3500원
고전 인문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등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노년 문화. 6명의 강연자가 ‘나이 들’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펼친 강연을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노년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모리, 노와 요일
미치 앨봄 저/실림/1만2000원
고전 인문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등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노년 문화. 6명의 강연자가 ‘나이 들’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펼친 강연을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노년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살과 나이
로마노 가르디니 저/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고전 인문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등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노년 문화. 6명의 강연자가 ‘나이 들’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펼친 강연을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노년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천 개의 공감
김형경 저/사람풍경/1만3800원
고전 인문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등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노년 문화. 6명의 강연자가 ‘나이 들’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펼친 강연을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노년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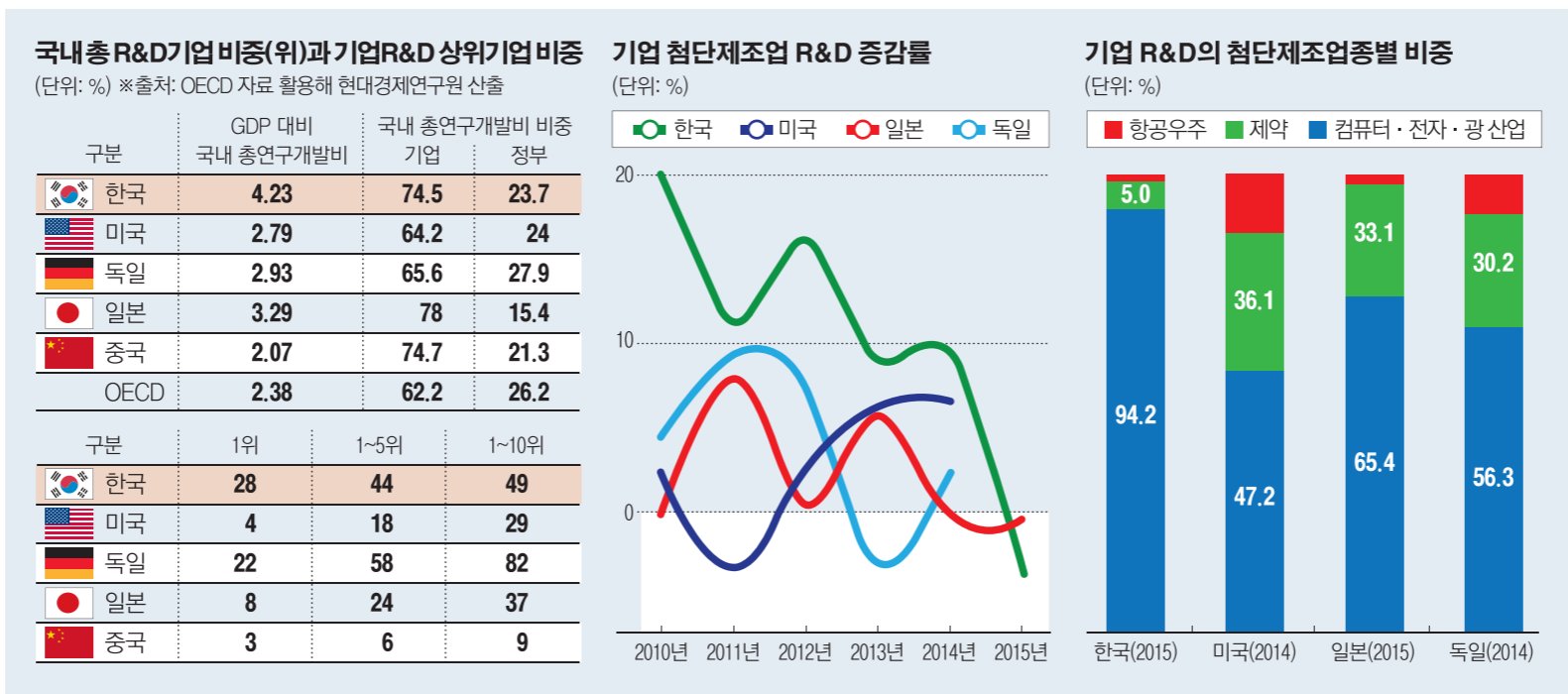
▶ 자세한 이야기는 고품격 시니어 공감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에서 만나세요.
구독 안내: (02)799-2680

기업 R&D 44%, 상위 5곳에 쏠렸다... 1위 비중 28%나

국내 혁신활동 기업편중 심각

국내 총연구개발(R&D)에서 기업 비중이 높고 특히 기업 R&D 비중 1위 기업이 28%를 차지하는 등 국내 산업 혁신 활동의 기업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전체 R&D 중 94.2%를 차지하는 등 불균형적인 혁신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총 R&D 중 기업의 비중 74.5% 첨단기술제조 분야 투자액은 감소세 ICT 부문 94.2% 차지... 불균형 심해 외부 혁신자원 활용·인수합병도 저조



6일 현대경제연구원원의 '국내 산업의 혁신 활동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총 R&D (2015년 기준)에서 기업 비중은 7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2%)보다 높다. 정부 부문 비중은 23.7%로 OECD 평균(26.2%)보다 낮다. 기업 R&D 비중은 상위 5개 기업이 44%에 달하며, 1위 기업 비중은 28%를 차지했다. 1위 기업 비중이 2~4위 4개 기업보다 클 정도로 편중된 것이다. 미국(18%), 중국(6%), 일본(24%) 등의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낮았는데 이는 기업 대부분이 고르게 R&D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위 비중이 58%로 우리보다 높은 독일도 1위 비중은 22%로 우리(28%)보다 낮아 우리나라 기업 R&D가 얼마나 1위 기업에 편중됐는지를 보여준다.

중형 기업의 R&D 투자는 저조하다. 매출이 감소해도 R&D를 늘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의미하는 R&D 집중도(2016년)는 2.8%인데 중형 기업(자본금 100억~500억 원)은 1.7%로 평균 밑이다. 자본금 3억~10억 원 미만은 2.2%, 10억~100억 원 미만은 2.1%에 그쳤다. 500억 원 이상 기업만 3.3%로 평균보다 높았다. 일본의 경우 R&D 집중도가 3.3%인데 10억~100억 엔 미만 중형 기업은 3.5%로 우리보다 높았다. 다만 1억~10억 엔 미만 기업은 1.4%로 우리가 높았다. 더불어 첨단기술제조 R&D 투자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2014년 ICT(컴퓨터·전자·광),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제조업 R&D는 15% 내외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 5.2%, 독일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2015년 ICT R&D가 5.5%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금액도 4.0% 감소했다. 특히 2015년 ICT가 첨단기술제조업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2%로 불균형이 심했다. 미국, 일본, 독일의 ICT 비중은 50~70%, 제약은 30~40%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제약이 5%, 항공우주가 0.9%로 비중이 미미했다. R&D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은 2015년 투자액까지 크게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 서비스업 R&D의 비중은 8.0%로 이는 독일 12.4%(2014년), 미국 29.9%(2014년)보다 작다. 또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 R&D 투자액은 2013년 2.7%로 둔화했고, 2015년엔 2.2% 감소했다. 미국의 서비스 R&D 금액을 100

으로 볼 때 한국은 4.6%로, 일본 16.2%, 독일 9.1%보다 크게 낮았다. 주요 서비스업종 모두 R&D 투자가 줄었는데 일본과 비교할 경우 전문과 학기서비스업의 R&D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일본은 학술연구와 전문·학기서비스의 R&D 집중도가 14.5%로, 한국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4.1%의 3배가 넘었다. 혁신 활동을 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성과는 감소했고, 외부 혁신 자원을 활용한 혁신 활동과 제조업의 인수·합병(M&A)도 저조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해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민간 부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병림 기자 riby@

'최초' 혁신제품 갈수록 독... 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됐지만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국내의 시장 최초 제품은 오히려 이전보다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제품의 '패스트 팔로어'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한 오늘날 '퍼스트 무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이폰을 벤치마킹해 더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지만, 이후의 포스트 아이폰을 구상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원의 '국내 산업의 혁신활동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계가 시장 최초 제품을 출시하는 비중은 하락 추세다.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 혁신성과

기간	제품 혁신	
	국내 최초	세계 최초
2009~2011년	33.00%	5.00%
2011~2013년	27.70%	6.90%
2013~2015년	22.10%	3.20%

제품 혁신 측면에서 '국내 최초'인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제조사 비율은 2009~2011년 33.0%에서 2011~2013년 27.7%로 낮아진 데 이어 2013~2015년 22.1%까지 떨어졌다. 2009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10.9% 포인트(p)나 급락한 수치다. 국내 제조사에서 '세계 최초' 제품 출시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9~2011년 5.0%에서 2011~2013년 6.9%로 소폭 상승한 뒤 2013~2015년 3.2%로 추락했다. 최근 국내 최초 제품을 내놓은 제조업체는 22%, 세계 최초는 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제품과 마케팅에 대한 혁신성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 중 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비중(혁신율)은 2011~2013년 31%에서 2013~2015년 58%로 개선됐다. 이는 2012~2014년 기준 일본(45%)을 앞선 수준이지만 독일(67%)에는 못 미쳤다. 이정필 기자 roman@

“국가 혁신정책, 기술·제품·공정 위주서 벗어나 사업개발까지 포괄해야”

제조-서비스 부문 융합 혁신 정책을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강화도 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혁신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한 장기·거시적인 차원에서 민간 부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혁신 활동이 1위 기업에만 연구개발(R&D) 의존도가 과중하고 정작 첨단 기술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R&D는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크게 늘었지만 제품과 마케팅 혁신이 저조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최초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연결, 융합 트렌드에 맞춰서 국가 혁신 정책을 기술, 제품·공정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사업개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 제조와 서비스 부문이 융합된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변혁 수준을 분석·평가해 그에 맞춰 제품(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개발, 나아가 가치 사슬을 재편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 업종의 모든 기업에 걸쳐 R&D 등 혁신 투자를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직접 지

원), 조세(간접 지원)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혁신 정책 도입도 촉구했다. 특히 R&D 집중도가 낮으며 업력이 오래돼 사업이 성숙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를 제고하면서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혁신 실행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제조와 서비스가 연결·융합된 고부가 제품(유행제품+서비스) 개발과 플랫폼 확보가 산업·제품 경쟁력의 핵심이며 서비스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제조

혁신만으로는 제조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고부가 실현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조 혁신 정책에 서비스를 결합해 제조 기반의 서비스 개발·육성하는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강화가 시급하다며 빅데이터, AI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데이터 보안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적용 방법론 지원, 활용 사례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유발형 혁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신사업 추진 환경 조성도 주문했다. 박도훈 기자 soqood@

KBIZ 중소기업중앙회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는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회계 세무 노무 지식재산

노란우산공제

상담 받으시는 방법!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대 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상 담 일 매일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자이비중합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강, 의견서 등 서비스를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1회에만 한함.

지원 분야!

법률
채권외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노무
채용, 애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세무
가장대행(외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회계
외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무료 상담 1666-9976 / www.kbiz.or.kr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은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이번 주말에는 낮과 밤이 즐거울 것 같다. 세계 팬들의 관심 속에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마스터스가 열린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에는 '핫식스' 이정은6과 '슈퍼루키' 최혜진이 '외나 무다리'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두 대회 모두 SBS골프가 생중계 한다.



지난달 12일 플로리다 팜버에서 열린 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 4라운드 16번 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티오프 하고 있는 모습을 갤러리들이 카메라에 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 보자” 최종R 입장권 1000만원

PGA ‘마스터스’ 토너먼트

1·2R 레시먼·플리트우드와 샷 대결
연습 시간부터 갤러리 몰려 흥행 예고
김시우, 재미교포 덕 김과 동반 플레이

마스터스(총상금 1100만 달러) 강력한 우승후보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43·미국)가 1, 2라운드에서 비교적 편안한 상대를 만났다. 우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한 마스터스 1, 2라운드에서 마크 레시먼(호주),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샷 대결을 벌인다.

최고의 ‘흥행카드’인 우즈의 마스터스 출전은 3

년만이다. 우즈는 2015년 이 대회에서 공동 17위를 한 뒤 2016년과 2017년에는 허리 부상으로 인한 재화로 출전하지 못했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하는 김시우(23·CJ대한통운)는 지난해 8월 US아마추어에서 준우승한 재미교포 덕 김(22), 베테랑 샌디 라일(60·스코틀랜드)과 한 조에서 플레이한다. 디펜딩 챔피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는 저스틴 토마스(미국),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닉 레드먼(미국)과 함께 라운드 한다.

필 미켈슨(미국)은 라키 파울러(미국)와 맷 쿨처(이상 미국),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는 존 램(스페인)과 애덤 스콧(호주)과 함께 같은 조에서 경기를 갖는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알렉스 노렌(스웨덴)과 루이 우스티아젠(남아공), 더스틴 존슨(미국)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라파

카브레라 베요(스페인), 비바 왓슨(미국)은 헨릭 스텐슨(스웨덴)과 제이슨데이(호주)와 동반 플레이 한다.

명예출전 선수로 개리 플레이어(남아공)와 잭 니콜라우스(미국)가 첫초에서 영예의 오픈닝 티오프를 했다.

한편, 우즈로 인해 이번 대회는 역대 최고의 흥행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라운드 입장권 가격이 600만 원을 넘고, 최종 라운드는 1000만 원을 넘겠다는 외신보도다. 특히 연습 라운드에도 웬만한 대회 최종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갤러리들이 몰렸다.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2005년에 마지막으로 우승했다. 우즈는 메이저대회 14승, PGA투어 통산 79승을 올리고 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볼 방향성·거리는 ‘임팩트’로 결정된다



흔히 골퍼는 임팩트가 전부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볼을 원하는 방향과 거리로 보내기 위해 선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맞았는지에 따라 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잘못된 사선처럼 헤드 위치를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헤드의 최저점이 뒤에서 떨어지게 돼 토핑, 혹은 볼이 많이 닫혀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탄도가 너무 낮고 토핑이 많이 나오는 골퍼는 볼을 치기 전, 예행 동작으로 올바른 동작과 같이 양손은 볼보다 좀 더 앞서 있고 헤드는 스퀘어로 볼 근처에 있도록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먼저 동작을 2-3번 한 후 스윙을 하면 몸의 근육이 가장 최근의 동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동작을 천천히 그리지 못하면 빠르게 스윙 할 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바른 동작처럼 거울을 보며 따라해 보고 처음부터 잘 되진 않더라도 올바른 움직임을 천천히 그려보면 몸에서도 서서히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양손이 리드 하더라도 손목이 계속 꺾여 있는 것이 아닌 볼 근처에 왔을 때 손목이 조금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샤프트와 손목이 일체가 되기 때문이죠. 폴로스루까지 손목을 버티며 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연습 방법은 연습 스윙 때 매트 위에 불대신 소프트 스틱 혹은 테이프 등 얇은 소재



헤드를 너무 일찍 풀면 토핑 등 미스 샷을 유발하기 쉽다. 양손은 사진 오른쪽처럼 볼보다 좀 더 앞서 있고 헤드는 스퀘어로 볼 근처에 있도록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의 물건을 볼 위치에 세로로 놓고 물건보다 앞쪽에 헤드가 떨어지도록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손목이 빨리 풀리면 스틱보다 뒤쪽에 헤드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볼의 앞 땅을 치도록 하는 것이죠. 헤드보다 양손이 살짝 리드 되는 느낌입니다. 스틱보다 손을 앞서게 한 후, 손목을 푸는 것입니다. 손목이 풀어지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풀어지는 동작은 미스 샷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바른 타이밍을 위해 순서를 연습하는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타이밍을 위해 천천히 동작을 익히고 반복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원

“주니어골퍼라면 언제든지 홀 개방”

최상의 그린 유지 ‘JMS 파3’ 골프클럽
한달 18만 원에 쇼트게임 레슨·파3 이용

주니어골퍼들의 천국(?) 맞다. 가보면 안다. 비록 파3 골프장이지만 주니어들이 쇼트게임을 연습하기에는 최적이다. 홀이 비거나 한가한 시간에는 교습가들이 주니어들과 함께 특강실에서 쇼트게임을 훈련할 수 있다. 수도권에 자리잡은 제이엠에스(JMS) 파3 골프클럽이다. 서울과 분당, 동탄 신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기흥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골프클럽은 35야드에서 100야드까지 9개홀을 갖추고 있다. 물론 핀 위치에 따라 길이는 달라진다. 천연잔디로 꾸며 놓은 이 클럽은 무엇보다 페어웨이 잔디 및 그린은 벤틀그라스로 최상의 상태를 자랑한다. 그린 빠르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주니어들이 대회를 앞두고 퍼트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안성맞춤이다.

주니어 선수들은 1개월 이용권 18만 원이면 한달 내내 하루종일 라운드와 연습을 할 수 있다. 일반 골퍼는 1일 이용객은 9홀에 1만5000원이고, 드라이빙 레인지 회원은 1만2000원이다. 다만, 주니어들은 계절에 따라 라운드는 연습이 제한될 수 있다.



파3 골프클럽에서 연습 중인 주니어 선수들.

벤틀그라스로 별도로 조성된 퍼팅그린만 이용하면 하루에 5000원이다. 특별 골퍼레슨으로 명성이 높은 김현철 헤드프로가 현장에서 직접 골퍼 교습도 해준다. 골프클럽과 함께 거리 300야드가 넘는 3층, 81타석의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다. 헬스클럽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으며 병거전용 연습장도 있다.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송홍식 블루비즈 대표이사는 “파3 JMS 골프클럽은 주니어선수들과 프로들이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도록 홀을 개방하고 있다”며 “프로 및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 수준에 맞춰 최상의 잔디와 그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김효주·이정은6·장하나... ‘대세女’들의 샷 대결

KLPGA ‘롯데렌터카 오픈’

올 시즌 개막전 우승 최혜진 2승 도전
파라다이스시티...’ 최종 2인 진검승부 예고

“흥행카드” 이정은6(22·대방건설), 최혜진(19·롯데), 홍란(32·삼천리)이 한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무대는 올 시즌 4번째 대회이자 국내 첫 대회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 2000만 원). 5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4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 72·6220야드)에서 열린다.

김효주(23·롯데)가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KLPGA투어에 출전한다. 2012년 이 대회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는 지난해에도 공동 4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통산 4승을 올리며 국내 최강자 자리에 오른 이정은6이 강력한 우승후보다. 특히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후 상승장구했던 이정은6에게 이번 대회는 더욱 뜻깊다. 이정은6은 “이 대회가 처음으로 우승한 대회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타이를 방어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톱10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8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혜진(19·롯데)도 2승에 도전한다. 최혜진은 이번 시즌 2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4위에 오르며 이정은6의 대항마로 손색이 없다. 최혜진은 현재 신인상 포인트뿐만 아니라 상금순위, 대상포인트, 평균타



5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제주CC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김효주·이정은6·장하나(왼쪽부터)가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LPGA

수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기 위해 인터내셔널 퀵리파이 토너먼트를 시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해외 선수들의 국내 대회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KLPGA는 2016년 해외선수 특별추천 인원을 6명으로 늘렸다.

이번 대회에는 2018시즌 KLPGA투어 10개 대회의 출전권을 내걸고 펼쳐진 ‘파라다이스시티 신데렐라 스토리 오브 KLPGA’의 최종 2인이 처음 출전한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등 6개국에서 출전한 12명의 참가자 중 다양한 방식의 서바이벌 미션 대결에서 살아남은 지에 품(25·대만)과 제네비브 링아이언(23·말레이시아)이 그 주인공이다. 또 다른 해외 참가자 빠리다 포안(22·태국)은 2018시즌 개

막전 ‘호성 챔피언십 with SBS’에서 코스레코드를 세우며 국내 골퍼팬에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KLPGA투어에서 다시 우승 포효를 튼 장하나(26·비씨카드)가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지현(27·한화큐셀), 오지현(22·KB금융그룹) 등 지난해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과 하민승(22·롯데), 지한솔(22·동부건설), 박결(22·삼일제약) 등 올 시즌 상승세에 상위 선수들이 출중동해 우승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또한, 롯데 소속의 김지현2(27), 김현수(26), 이소영(21), 장수연(24) 등도 스폰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인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

오디세이, 프리미엄 한정판 ‘엑소 투블 퍼터’ 출시

퍼터 브랜드 대명사 캘러웨이 오디세이의 프리미엄 한정판 모델이 출시됐다. 캘러웨이골프(대표이사 이상현)는 투블(2-Ball) 퍼터 탄생 16주년을 기념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가 더해진 엑소(EXO) 투블 퍼터를 선보였다.

스टी디 셸러 투블 퍼터는 2000년대 등장하자마자 두 개의 공을 그려 넣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투블 퍼터는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골퍼공과 똑같은 크기의 볼그림을 적용한 얼라인먼트 기술로 스트로크의 정교함을 극대화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구현해낸다. 실제로 2001년 아나키 소렌스탐은 투블 퍼터를 사용해 당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59타를 기록한 바 있다. 투블 퍼터는 최근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에 캘러웨이가 새롭게 선보이는 엑소 투블 퍼터는 오랜 기간 쌓아온 오디세이의 기술력과 프리미엄 디자인의 결정판이다. 전 세계 총 2500



개 한정 생산되며 국내에는 300개만 판매된다. 고급스러운 로즈 골드와 블랙 컬러가 완벽하게 마감으로 적용돼 품격이 돋보인다. 헤드 솔 뒷부분에 약 40g의 스타일리시한 메달리온이 장착돼 무게중심을 낮추고 안정된 스트로크를 제공해준다. 또한 크라운과 솔, 모든 모서리 표면이 정밀하게 밀링 처리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오디세이만의 투블 디자인이 골퍼의 집중력과 얼라인먼트의 정확성을 높여주며, 투어에서 검증된 마이크로한지 인서트와 임팩트 시 더 빠른 볼구름을 만들어내고 직진성을 강화해준다는 것이 캘러웨이 측 설명이다.

“세상 바꾸는 첫걸음, 말하라”... 출판계도 #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後 급속 확산 상처 치유 못하는 여성과 가족의 삶 조영 과거 사례·상담 기관 설명 책도 내놔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해야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방법 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올해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성추행당한 사실을 담담히 밝힌, 용기 있는 고백을 계기로 연극, 문학, 방송, 정계까지 전 영역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만 수십 명에 달한다. 청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조민기는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스스로 사임했으며, 지난달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충격을 안겼다.

출판업계에도 ‘미투’ 바람이 불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책들이 독자들을 반기고 있다.

이도영 작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본



미투
이도영/강단/1만2000원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홍태화/한빛비즈/8800원



굿바이, 세븐틴
최형아/새롬/1만3000원

사회적 약자들이 상처를 받은 것도 힘든데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늘에 숨어 하루하루 자신을 생채기 내며 살고 있을 여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미투’라는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도영 작가의 ‘미투’는 소설 속 헤영과 딸 연수, 그 가족을 통해 미투 사각지대의 삶을 조명했다. 가족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차마 ‘미투’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가정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자는 주인공 헤영에게 공감하며 같이 울고 아파하며 정신없이 써 내려갔다고 말했다. 저자는 “권력자들이 마구 휘두르는 칼날에 무

침히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약자 중 자신은 고발하지 못할지라도 이번 ‘미투 운동’이 확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은 고발하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힘든 문제도 있지만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사회적 편견이 심화한 문제 또한 이번 기회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미투’로 인한 변화를 촉구했다.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은 성폭력, 부당 해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내 갑질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이에 이 책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알리는 방식, 도움을 주는 기관, 관련 법규, 과거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 홍태화 씨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미투 운동’은 이제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다. 단순히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하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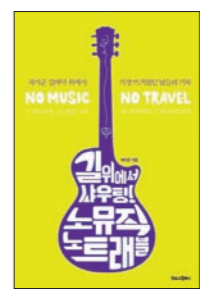
최형아 작가의 장편소설 ‘굿바이, 세븐틴’은 열 일곱 살에 끔찍한 성폭력을 당한 한 여성의 파괴된 내면과 끝까지 않은 고통을 그린다. 이 책에는 두 여자가 등장한다. 한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은 이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이는 그 죽음의 이유를 파헤친다. 성폭력의 잔인함은 그것이 육체를 넘어 영혼까지 망가뜨린다는 데 있다. 주인공은 아무런 단죄를 받지 않고 살아오며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성폭력을 일삼고 있는 가해자를 직접 응징한다.

저자는 “상처를 가진 분들의 마음속 풍경을 그리는 게 어려운 과제였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대변하고 위로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며 “무관심이 미덕처럼 포장되는 이 시대에 두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하고,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ijr0403@

새로 나온 책



스마트 워라벨
가재산/당신의사재/1만5000원
최근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위한 워라벨 전략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가재산 피플그룹 대표이사과 장동익 피플그룹 상임고문이 함께 쓴 책 ‘스마트 워라벨’은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하드 워킹 기업들이 스마트 워킹 기업으로 혁신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워라벨 화두에 맞춰 기존의 경직되고 통제 중심의 기업문화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근무시간을 과감히 주 35시간으로 단축했고, 삼성전자는 과거의 관리통제형인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로 변신하고 있다.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고 직급을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LG전지도 주 52시간 근무제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수평적 소통을 위한 호칭체계 변화에 나서고 있다. 저자들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일을 스마트하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워킹’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 위에서 사유할! 노무직 노트래블
에이칸(신현석)/북로그컴퍼니/1만4000원
졸업 후 금융권에 입사했지만 단조로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사표를 낸 저자 에이칸(신현석)은 2개의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해 회사를 금성장사켰으나 30세가 되던 해 연대보증 1억 원, 부채 2000만 원이라는 빚만 남긴 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다. 저자는 이후 호주에 이민 간 친구와의 전화 통화 끝에 배낭 하나를 메고 도망치듯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여행에 나섰다. 저자는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노 뮤직 노 트래블(No Music No Travel)’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부산에 작업실을 차리고 책 ‘길 위에서 사유할! 노무직 노트래블’ 출간과 함께 음악과 영상 작업을 하며 여전히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호주에서 만난 다양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낮에는 냉동 창고에서, 밤에는 배달 일을 하는 고된 일상이 계속됐지만 집 한 구석 작은 창고를 개조해 녹음실을 만들고 친구들과 디제잉과 라이브 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빚을 정리한 저자는 ‘길 위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며 여행하는 히피로 살아보겠다’고 선언하고 낡은 고물차에 텐트, 침낭, 간단한 조리 도구, 음악 장비만 챙긴 채 무계획으로 좌충우돌 버스킹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김유정... 요절한 두 문학천재의 못다한 뒷이야기는

1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文友 서거 81주기... 삶과 우정·문학 담아 ‘우리 서로에게 별이 되자’ 출간

1937년 3월 29일 소설가 김유정이 폐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1936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형수네 단칸 셋방에 함께 살며 폐결핵이 악화해 고생했다. 죽기 11일 전 방 안에 커튼을 치고 훗날을 전 채 친구 안희남 앞으로 ‘필승전’이라는 글을 남긴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937년 4월 17일 일본에서 소설가 이상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상은 죽기 직전 사상 불온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병보석으로 한 달 만에 석방됐다. 이후 동경지재국대



그리고 81년이 지나 이상과 김유정을 추모하고 이들의 삶과 우정, 그리고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는 책 ‘우리 서로에게 별이 되자’가 출간됐다. 이상과 김유정은 우리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천재들이었지만 살아생전 그들과 그들의 작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1935년 김유정의 신춘문예 당선 축하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김유정과 모던 보이요, 투사 외도 같았던 이상은 성격은 달랐

학 부속병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20여 일 만에 별어진 연이은 비보에 그들의 가족과 벗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얼마 후 합동 추도식을 올리며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만 유독 잘 어울렸고, 우정도 남달랐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데다 폐병과 사랑의 열병을 앓았으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등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

‘우리 서로에게 별이 되자’는 이상과 김유정, 두 문학 천재가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빛어낸 삶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고 있다. 두 사람이 남긴 주옥같은 글 중 삶이 직접 투영된 에세이만을 엄선해 당시 그들이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 삶의 순간순간 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에는 이상과 김유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벗들이 슬픔을 억누르며 그들을 추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들이 느낀 먹먹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글이다.

소설가 채만식은 김유정을 추억하며 ‘세상

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유정임을 절절히 느꼈다. 공손하되 허식이 아니요, 다정하되 그냥 정이요, 유정에게 어디 교만이 있으리오. 그는 진실로 톨스토이(유정의 마지막 일작 ‘파리’)의 등장인물로 누이에게 얽혀살며 글을 쓰는 무기력한 존재였다. 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명색 없는 작가 여남은 갖다 주고 다시 물러오고 싶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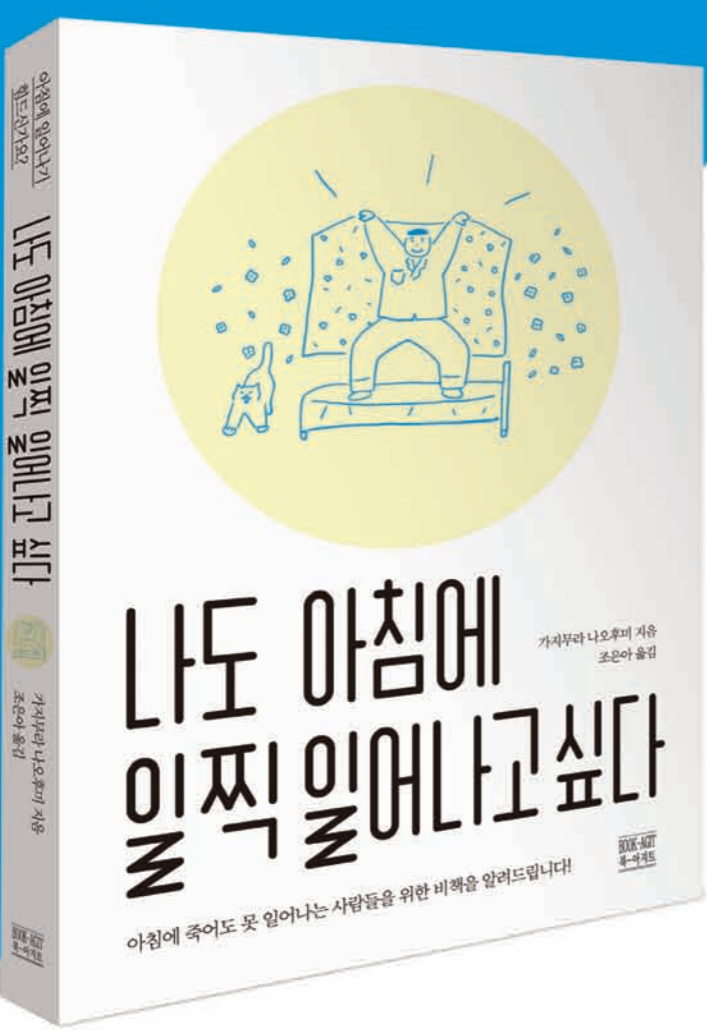
소설가 박태원은 이상을 추억하며 “그는 온건한 상식인 앞에서 기탄없이 그 독특한 화술로써 일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규정을 벗어난 세계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는 술을 사랑하고 벼를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했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재영 기자 ijr0403@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지만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

- 1. 깊은 잠을 부르는 15가지 방법
- 2. 상쾌하게 일어나는 8가지 방법
- 3. 수면 유형별로 기본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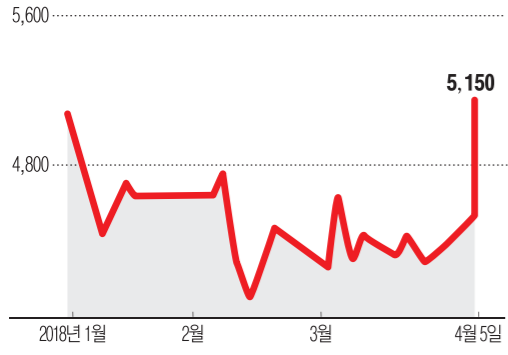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면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책에 귀 기울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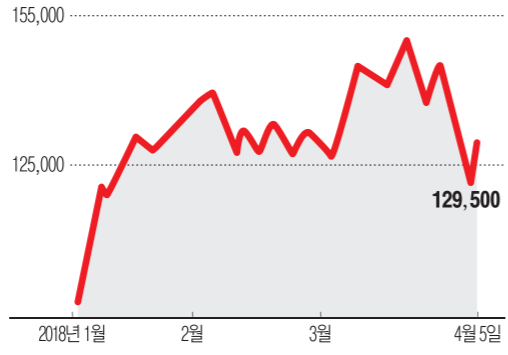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가저무라 니오후미 지음 / 조은아역 / 224쪽 / 13,800원 / 북이짓트

BOOK-AGIT 북-이짓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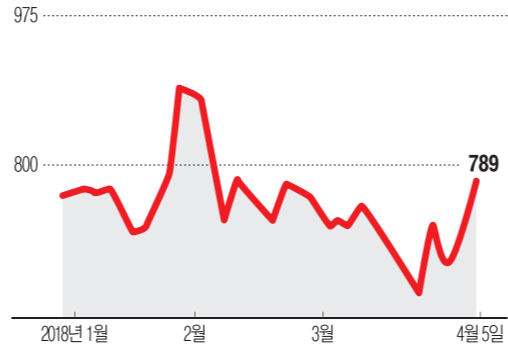
현대상선 주가 추이
(단위: 원)



현대중공업 주가 추이
(단위: 원)



흥아해운 주가 추이
(단위: 원)



‘해운재건 계획’에 맞 올린 조선해운株

정부 “2022년 해운 매출 51兆 목표”
오랜 침체에도 연내 주가 회복 기대
조선사들 주주 턴어라운드도 긍정적
현대상선 장중 25% ↑ 年 최고 경신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되자 조선·해운주가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오랜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친 관련주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5일 14.83% 오른 5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는 25% 이상 오른 5650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흥아해운 역시 전날보다 10.97% 오르며 장을 마감하면서 이달 들어 주가가 반등했다. 이날 해운주의 동반 급등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 전체 선사의 40%가

남는 60곳의 부채비율은 400%가 넘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운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조선주의 주가도 일제히 올랐다. 지난 일주일간 12%의 하락 폭을 그린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이날 7.02% 오르며 13만 원을 눈앞에 뒀다. 또 대우조선해양(7.23%), 현대미포조선(5.62%), 삼성중공업(4.12%) 등이 동반 상승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조선·해운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었지만,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신규 수주와 선가 상승이 이뤄진다면 주가 회복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조선사들의 주주 턴어라운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 3사는 총 26억 달러(약 2조7600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2억 달러(약 2조3300억 원) 어치 일감을 수주했다

최근 중국 1, 2위 조선사인 CSIC과 CSSC의 합병 방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 우려도 나타났지만, 2014년부터 중국의 조선사들이 양적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추월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중국 영세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으로 무분별한 저가 수주가 완화된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선가 상승 시기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60억 달러(약 6조3600억 원)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선가 인상 속도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전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사들의 실적 회복은 이르면 3분기, 기자재 업체들은 3~6개월 선행한 2분기부터 예상된다”라며 “사이클이 긴 업종 특성상, 회복 초입인 올해 투자 전략은 종목별 차별화보다 업종 비중 확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美·中 고래싸움에 몸살 난 코스피

이주의 수급동향

외국인·기관 4493억여치 순매도
2400선 후퇴 후 협상 움직임에 회복

코스피가 무역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몸살을 앓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일부터 5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총 257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같은 기간 19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4681억 원 순매수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2437.52로 마감, 전주 대비 8.33포인트(0.34%) 하락했다. 코스피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하면서 3일 2400선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양국이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안도감이 확산,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다. 이 기간 외국인이 털어낸 코스피 주식은 1조174억 원에 달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하락했다”고 진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분쟁 가능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우리 증시에 후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모비스(999억 원)로 이 기간 주가는 9.60% 뛰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705억 원, 249억 원어치를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위	현대모비스	999	6위	롯데케미칼	251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	844	7위	기아차	249
3위	현대차	705	8위	LG생활건강	245
4위	신한지주	308	9위	롯데쇼핑	209
5위	아모레퍼시픽	302	10위	네이버	208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기간: 4월 2~5일)

투자자	수급
기관	-1,917
외국인	-2,576
개인	4,681

* 출처: 한국거래소

사들였다. 중국 소비 관련주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302억 원)과 LG생활건강(245억 원), 롯데쇼핑(209억 원)도 바구니에 담겼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844억 원) △신한지주(308억 원) △롯데케미칼(251억 원) △네이버(209억 원)에 두 손을 뻗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3445억 원어치를 내던졌다. 삼성SDI와 삼성생명도 540억 원, 275억 원씩 팔아치웠다. 이 밖에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611억 원) △CJ제일제당(423억 원) △셀트리온(374억 원) △한국전력(351억 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은 △한국전력(967억 원) △아모레퍼시픽(788억 원) △현대차(694억 원) △호텔신라(443억 원) △CJ제일제당(416억 원) 등에 러브콜을 보냈다. 유혜은 기자 euna@

지난해 흑자전환 상장사 10곳 중 6곳, 주가 逆주행

코스피 19개社 코스닥 48개社
실적 기대감 미리 반영돼 몸값 하락
연말 증시 조정 영향도 한몫
“크게 상승한 기업일수록 낙폭도 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절반 이상이 주가 상승은 커녕,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흑자전환한 37개 기업 중 지난해 말 주가가 2016년 말보다 하락한 기업은 19개 사(55.9%·감자 및 액면분할사 제외)에 달했다. 흑자전환을 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19개사 중

아이아이(-49.5%)의 하락률이 가장 컸고, 쌍방울(-43.1%), 인디에프(-40.6%), 보해양조(-26.3%), 웅진(-20.7%), 덕양산업(-20.1%)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흑자전환한 78개사 가운데, 48개 사(66.7%)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감자 및 액면분할, 무상증자한 6개 사를 제외한 수치다. 기업별로는 넥스트바이오홀딩스(-65.7%), 서연탑메탈(-60.4%), 디엔티(-54.8%), 나노(-47.9%), 포티스(-47.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이전에 주가에 미리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 것이 거의 유력해 보이

는 시점에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말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선반영에서 오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추정치)는 회계감사 이후 흑자전환이 공식되는 시점보다 이전에 형성된다”면서 “공시 시점에 흑자전환 규모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증시 조정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지수가 불안할 때 이미 가장 큰 차익을 본 수익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기업의 주가 낙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기업 PR)

예탁결제원 용역직 100여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정규직화 이어 6월 시행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예탁결제원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를 일자리 창출 원년의 해로 정하고, 2월 좋은일자리창출추진전담반을 일자리 창출본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사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간제 비정규직 34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예탁결제원은 간접고용(용역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시설립준비단’을 신설, 일자리창출본부 내에 편성했다. 6월 중 최초 전환을 시작으로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 전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상자는 100여 명으로 예상된다.

2014년 분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예탁결제원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 소재 공공기관 7곳과 함께 ‘부산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지원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BEF) 조성, 부산지역 대학생 대상 공동채용 설명회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근무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공동 운영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가 되자, 지난달 2일 부산 분사에 어린이집을 새롭게 개원했다. BIFC 2층에 문을 연 어린이집은 정원 45명 규모로, 직원 30여 명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원장과 보육교사, 조리사 등 총 14명을 신규 채용해 민간 일자리까지 마련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투자펀드’에 25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440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경제,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공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교통, 호텔, 은행을 비롯해 모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를 형성하는 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할 베리안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공유 경제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 경제가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는 곧 찾아올 것이다. 아룬 순다라라잔의 책보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좋은 지침은 없다. — 에릭 브린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아룬 순다라라잔 지음 | 이은주 옮김 | 16,800원

SGA '블록체인 新사업' 시너지 낼까

암호화·인증사업 부문 전문화... 'SGA블록체인' 설립 마무리 차세대 플랫폼 자체 개발... 공인인증서 대체 '통합인증' 추진

종합보안 솔루션 기업 SGA솔루션즈가 블록체인을 신사업으로 암호화와 인증사업 부문을 전문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에 접목하는 것으로 그룹 전체 시너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GA솔루션즈는 SGA그룹의 암호·인증사업 부문을 인적·물적 분할해 SGA블록체인 설립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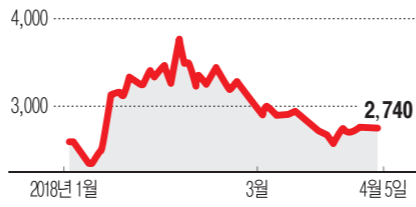
신임 대표이사에는 은유민 대표가 선임됐다. 은 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SK에너지, LS전선 등에서 근무했다. 2012년 SGA그룹에 합류해 SGA

솔루션즈와 SGA 부사장을 역임했다. SGA그룹의 경영혁신총괄로서 SGA그룹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20년간 대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재무 및 해외사업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SGA 블록체인에 암호인증 관련 전문 기술력이 결합돼 블록체인의 코어테크놀로지 연구 및 활용 솔루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 개 회사측의 설명이다.

SGA블록체인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대체 보안체계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전자서명법에 의해 도입된 후, 20여 년간 국내 인증서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는 최근 폐지

SGA솔루션즈 주가 추이

(단위: 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 사실 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부의 보안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인증 시장, 그중에서도 차세대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금융권을 비롯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SGA블록체인은 차세대 산업 플랫폼

으로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개발해, 블록체인 응용 사업들을 SGA그룹 관계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암호·인증 기술 기반으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파이도(FIDO) 연계 솔루션 사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 우려도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접목될 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SGA블록체인이 그룹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이 기술을 응용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림 기자 hura@

화일약품, 치매치료제 원료 식약처 'DMF' 등록 진행 중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도

원료의약품 전문업체 화일약품이 현재 치매치료제 원료의 식약처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미국 FDA가 승인한 4가지 치매 치료제 성분 중 하나인 염산메만틴이다. 현재 이 회사는 리바스티그민과 도네페질 등을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하고 있다. 화일약품이 식약처로부터 DMF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하는 FDA 승인 약물은 총 37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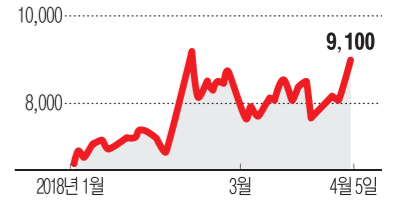
6일 회사 관계자는 "현재 치매치료제 성분 중 염산메만틴의 식약처 DMF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FDA 치매 승인 원료 중 리바스티그민과 도네페질 등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리바스티그민은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해서 국내 제약사에 공급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화일약품은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0년 설립된 회사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2년 상장됐다. 모회사는 크리스탈로 2013년 화일 pharm을 인수했다. DMF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의약품 동등성

美 FDA 승인 '염산메만틴'

화일약품 주가 추이

(단위: 원)



확보가 필요한 약물과 주사제는 등록된 DMF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기존 치매 치료제 품목 공급 이외에 모회사 크리스탈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신약 후보물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화일약품은 크리스탈이 개발 중인 신약 CG549(슈퍼파테리아 항생제, 임상시험) 및 CG745(분자표적항암제-췌장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임상시험 진행 중)의 원료를 합성, 공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인구는 2013년 4400만 명에서 2030년 7600만 명으로, 2050년에는 1억3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치매 연구개발 사업에 1조105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디앤씨미디어, 중국 兩大 만화 플랫폼에 웹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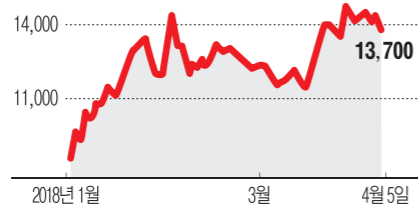
텐센트동만·콰이칸과 계약 "日·북미 등 진출 계획도"

국내 웹소설 및 웹툰 기업 디앤씨미디어가 중국 양대 만화 플랫폼인 텐센트동만, 콰이칸과 웹툰을 공급한다

디앤씨미디어는 중국 대표 만화 플랫폼 텐센트동만과 웹툰 '버림받은 황비'의 공급계약을, 콰이칸과 웹툰 '그녀가 공작제로 가야 했던 사정'의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디앤씨미디어는 작년 중국 서비스를 개시한 웹툰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에 이어 총 네 작품을 중국 웹툰 시장에 선보이게

디앤씨미디어 주가 추이

(단위: 원)



됐다.

기존 중국 서비스를 개시한 두 작품은 중국 내 다수 플랫폼과 비독점 형태로 공급되어 마케팅 및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한 협력 등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중국 양대 만화 플랫폼과 각각 독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마케팅 및

2차 저작물 제작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회사는 중국 시장 내 IP 기반 OSMU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카카오 페이지에 론칭한 노블코믹스(소설 원작 웹툰) '버림받은 황비'와 '그녀가 공작제로 가야 했던 사정'은 현재 각각 145만 명, 76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작품"이라며 "작년부터 중국 시장에 선보인 디앤씨미디어의 노블코믹스 작품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어, 국내에서 인기가 검증된 두 작품을 추가적으로 중국에 서비스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과 6월 중국 서비스를 개시

한 '황제의 외동딸'과 '이세계의 황비'는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각각 11억 뷰, 7억 뷰를 기록하는 등 중국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현호 디앤씨미디어 대표는 "이번 공급 계약이 체결된 두 작품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급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출시되는 웹툰 신작들도 현재 상황 및 국내 인기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텐센트동만과 콰이칸은 1억 명 이상의 이용자 수와 1500만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양대 만화 플랫폼이다. 특히, 텐센트동만은 5만 명 이상의 작가가 5만 편 이상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팬젠, 빈혈치료제 'PDA10' 수출 허가 획득

말레이·태국 등에 판매 계획 국내 판매 품목허가 이달 진행

팬젠의 빈혈치료제 'PDA10'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회사는 이르면 이달 내 식약처에 국내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PDA10'은 다국적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EPO 빈혈치료제 '이플렉스'의 세계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로 말레이시아 수출이 진행 중이다.

6일 팬젠 관계자는 "4일 빈혈치료제 식약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다"면서 "말레이시아 품목허가가 직전 단계다. GMP시설 준비 및 검사 등이 최근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는 조만간 들어갈 것"이라며 "서류

가 마무리 단계다. 승인 직후 즉시 국내 판매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A10은 암젠의 EPO 빈혈치료제 '이플렉스'의 바이오시밀러다. EPO는 적혈구 생성 관여 물질로 신부전 환자들이 통상 1주일에 3회 정도 주로 투약한다. PDA10은 '이플렉스'의 세계 두 번째 복제약으로 국내에는 팬젠이 지난해 9월 임상 3상을 마치고 최근까지 품목허가를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팬젠은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의 국영제약사 CCM과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에 PDA10에 대한 판매허

가를 신청했다. 승인 후 '에리사'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등 다른 국가로의 진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스사와 기술수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사에서 KGP, 인터볼스, 메타바이오메드, 메디프론 등과 함께 바이오 관련주로 꼽히는 팬젠은 지난해 9월에는 일본 YL바이오로지스(YLB, YL Biologics)사와 2세대 EPO 바이오시밀러의 원료의약품 생산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빚뽀

www.bithumb.com

빗뽀 지수 (2018년 4월 6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703,000	-7,000 (1.0%▼)	모넨로	190,500	4,500 (2.4%▲)
리플	538	-3 (0.6%▼)	비트코인골드	45,500	-100 (0.2%▼)
라이트코인	131,000	1,300 (1.0%▲)	이더리움 클래식	15,050	100 (0.7%▲)
대시	330,500	3,500 (1.1%▲)	퀀텀	14,700	-140 (0.9%▼)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점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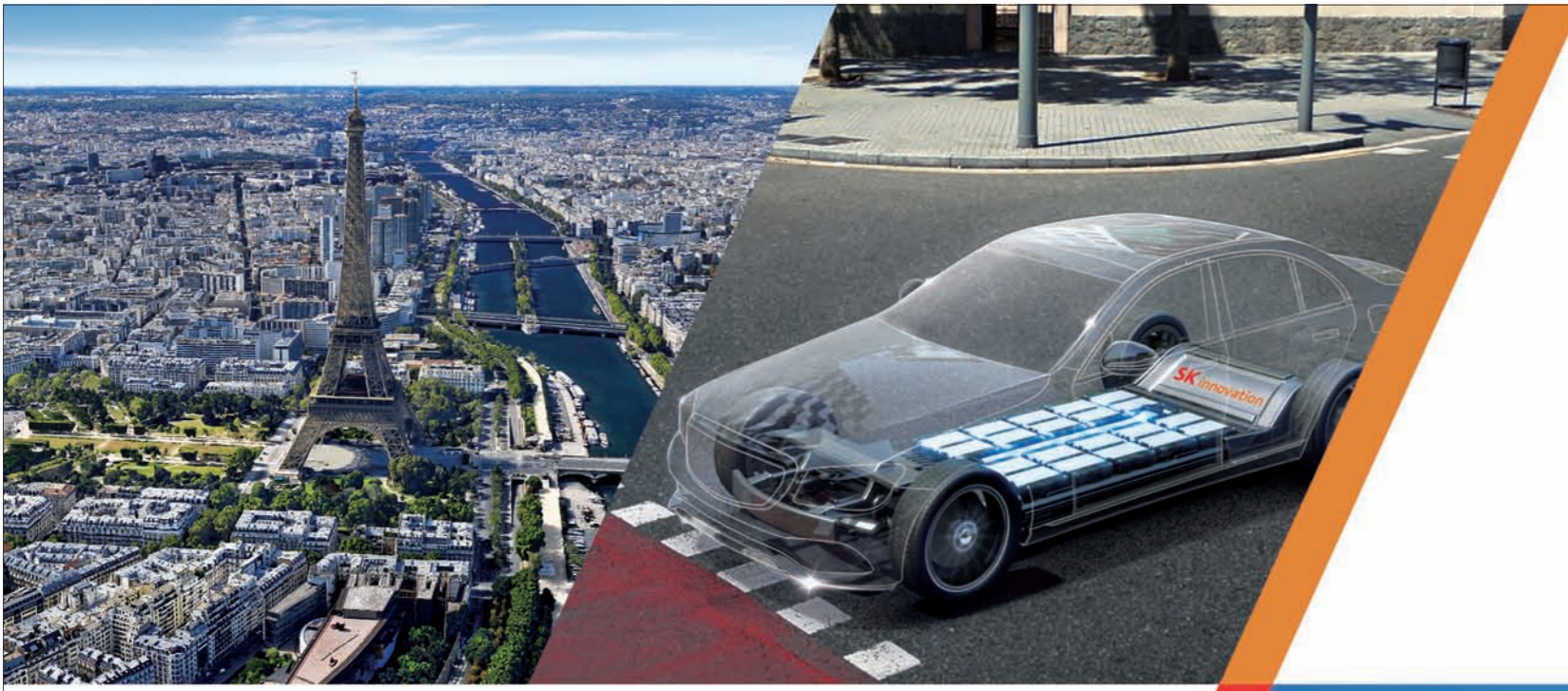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 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적용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유럽의 전기차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고효율 전기차 배터리 장착

중국의 화학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한중 최대 합작 화학단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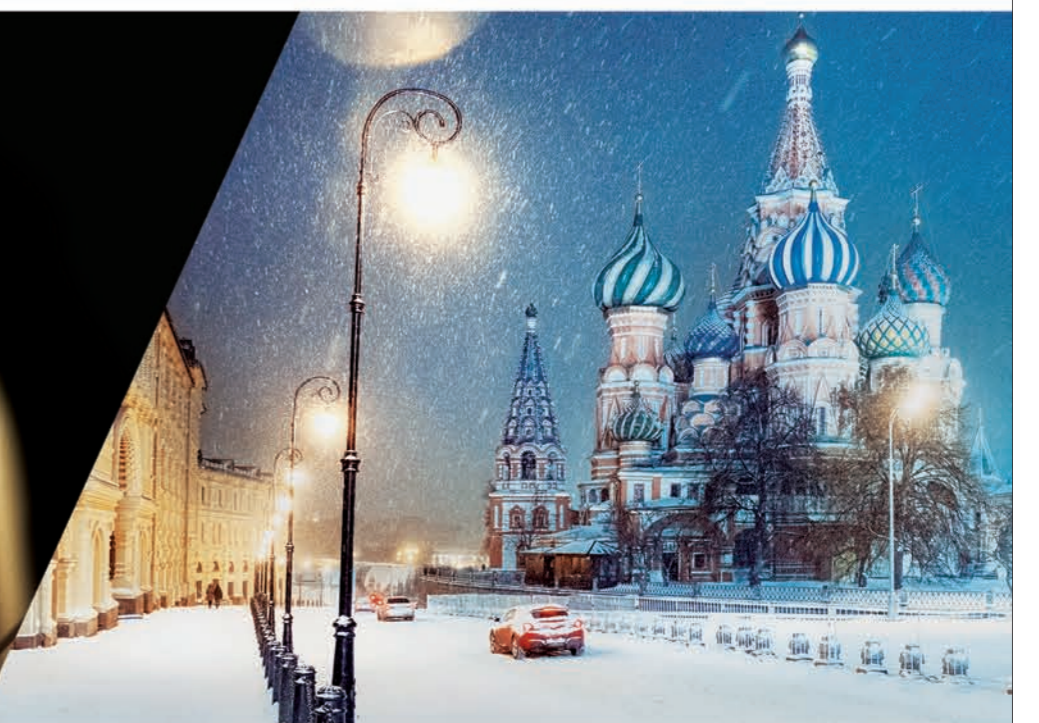


미국의 에너지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의 독자운영으로 미국 셰일가스 생산

러시아의 윤활유도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 윤활유 러시아 평가 1위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 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